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발행인 박 필 수
부 집 인 겸 손 두 영
편 집 장 이 성 환
외대신문사 (☎직962—7128교965—7001)
외대학보 (☎직965—7048교965—700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 쇄 인 한국경제신문사 이 규 행

제498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8년 9월 13일 (화요일)

서울·용인 정기학생총회 개최

서울, 2학기사업및 학민투쟁보고·총학생회장등 단식돌입

용인, 교내공원화계획, 구내인쇄소 설치등 복지문제 논의

서울, 용인캠퍼스 정기학생총회가 지난9월8일(목) 오후4시, 9일 (화) 오후12시30분 각각 개최되었다.

1천여명이 참석, 통일광장에서 열린 서울캠퍼스 정기학생총회는 단과대학생회장단 인사와 새로 구성된 총학일원소개, 2학기사업보고, 부총학생회장으로 내정된 이해웅군(동양·인도어4)의 인준순으로 진행되었다 °

총학생회 기획부장 강민신군(서양·서반아어3)은 2학기 사업보고를 통해 ▲학민사업추진 ▲민주적 학생회건설을 위한 적극적 외사수렵 ▲조국의 자주적 통일완수 ▲애국외대인의 대동단결을 위한 「학생의 주간」 행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학생회장 합힙성군(법·법학4)은 2학기진군선언문을 통해 『올해 상반기 애국외대의 선봉적 투쟁을 계승해 2학기에는 일반이천학우전체의 대표기구로 매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학생총회는 1·3부행사로, 노래패,풍물패공연과 정태춘, 박은옥씨공연이 있었다.

또한, 지난9월6일(화) 오후1시30분에는 2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해방광장에서 용인캠퍼스 정기학생총회가 총학생회장인사, 2학기사업보고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놀이, 노래모임「해뿌리」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 총학생회장 정형주군(서문·독어3)은 『왕산학우의 대동단결을 통해 학원민주화를이루고 공동올림픽정취투쟁을 벌여나가자』고 주장했다.

또, 교통문제개선내용보고와 교내공원화계획, 상징물제작, 구내인쇄소설치계획등의 발표가 있었다.

한편, 서울캠퍼스에서는 「학원민주화」를 안건으로 지난6일(화)전진대회와 개사곡 경연대회가 열렸으며 7일 부터 10일(토)까지 「학민추위」의 주최로 학원민주화와 관련한 학교측과의 4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학교측과 타결된 내용을 보면 ▲교문이전 ▲내년 신학기까지 박물관 이전 ▲도서관 장서 확충 ▲오후 10시까지 참고실 개방 ▲서고 개가식 운영등 인데 이에 대해 사법대 학생회장 조정곤군(영교 4)은 『학교측은 4차에 걸친 협상동안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학원민주화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학교측이 성실한 자세로 임하기를 촉구했다.

한편, 9월12일 (월) 부터 통일광장에 학민소위본부를 설치하고 총학생회장, 단과대학생회장등이 총파업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며 13일 (화) 에는 학민소위주최로 「학원민주화 투쟁결의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동총련」 공동올림픽 결의대회 가져

〈9일 (금) 「동총련」주최 집회가 끝난후 학생들이 교문앞에서 시위를 벌이고있다〉

동부지구 총학생회연합 (이하「동총련」) 주최「2학기 진군식및 전쟁반대 독재올림픽반대 공동올림픽쟁취결의대회」가 지난9월9일 (금) 오후4시30분 통일광장에서 개최되었다.

본교를 비롯한 한양대, 경희대, 서울시립대등 동부지구 6개대학 6백여명이 참석,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본교 총학생회장 합힙성군 (법·법학4)은 『동부지구 8만학도가 88년 상반기 통일운동의 선봉이었듯이 앞으로 전개될 단독올림픽반대와 공동올림픽쟁취투쟁에 다시금 떨쳐일어서야 합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동총련」 의장 김남훈군 (한양대총학생회장) 은 투쟁결의문을통해 『미국과 노태우일당은 한반도외정세를 위기속에 몰아넣고있으며 또한 분열을 영구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공동올림픽쟁취를위해 대국민편지보내기운동과지역선전, 범시민학생통일한마당을 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교문앞 10m의 도로를 점거하고 「독재연장 영구분단 독재올림픽 반대한다」 「조국통일 앞당기는 공동올림픽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여동안 시위를 벌이다 오후6시30분경 정리집회를 갖고 해산했다.

반전반핵 평화운동위한 한마당

총학·동아리연합회주최, 지선스님 초청강연등 준비

「공동올림픽쟁취와 반전반핵평화운동을 위한 애국외대한마당」이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공동주최로 9월14일(화) 부터 16일 (목) 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올림픽을 앞두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고양하기위해 기획된것인데 심포지움, 영화제, 시화전, 판화전 사진전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14일 (수) : 선포식 (오후3시, 통일광장) 반핵영화제, 올림픽과 세계평화에대한 심포지움 (오후5시 6104) ▲15일 (목) : 민족영화제, 지선스님 초청강연 (오후3시, 통일광장) 하나넘나라운동과 반전반핵평화운동 심포지움 (오후5시, 6221) ▲16일 : (금) 통일영화제, 초청공연 (오후5시 통일광장)

「외대」지 수습위원선발

「외대」지 편집위원회는9월15일 (목) 까지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209호 「편집실」에서제24기 수습위원선발 원서를 접수한다.

대상은 87, 88학번이며 시험은 9월15일 (목) 오후5시 필기·면접으로 치뤄진다.

용인, 「모의공동올림픽」 열려

문화체전등 다양한 행사마련

제9회 왕산체전이 민족통일을 위한 국국왕산 「모의공동올림픽」이란 것이 활발하다. 지난 9월3일의 KBS 심야토론은 「민족화시대의 이념문제」란 주제로 대토론을 벌였는데 공교롭게도 일간신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파적 시각의 네사람과 좌파적시각의 세사람간에 벌어진 좌우논쟁이었다고 한다. 또 9월11일자 주간조선은「이념대논쟁」이란 거창한 제목의 「보수냐 혁신이냐」란 토론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렇듯 이념논쟁이 사회전반에 걸쳐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현상은 지극히 환영할만하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그동안 사시(斜視)속에 부정되어 온 혁신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건강한 사회이념이 창출된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있는 이른바 「이념논쟁」이란 것은 그 근본부터가 뒤틀려져 있다. 할법내용에 불만을 품고 백주대낮에 칼을 앞세운 군인들이 우익으로 선전되고 「이방의 우익은 죽었는가」로 심지어 제도언론에서까지 도 비판의 표적이 되었던 교수가 신우익으로 치장되는 현실은 광신적파시스트들이 날뛰는 난장판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김남주 시인이 『지금 이 나라에는/보수와 진보가 있는게 아니어요/우익과 좌익이 있는게 아니어요/매국노와 애국자가 있을 뿐이에요』라고 했듯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진정한외미에서의 우익이나 보수는 불행히도 이방에는 없다. 단지 있다면 올림픽에 혹시라도 방해될지 모른다고 김거리의 동족들을 내몰아버리는 사대주의적 우익이 있을 뿐이요, 남북학생끼리 만나 체육대회 하겠다고 길거리에 누운 학생들에게 지탱만을 쏘아대는 신종매카시즘적 우익이 있을 따름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좌우익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부추기며 서로의 살아남을 길을 열어놓는다』는 레닌의 명제는 과분할 지경이다. 일해연구소에 51억을 낸 사장에게 입금 몇푼 올려달라는 노동자들을 좌경으로 몰아붙이는, 우리의 반쪽짜리 우익이 있을 뿐이요, 독후감쓴 걸 갖고 구속시키는 어리석음이 갈수록 더해만가는 이방의 우익 (愚益) 이 진행하는 「이념논쟁」의 주체는 좌·우나 보수와 혁신세력간의 논쟁이 아닌 「매국노」와 「애국자」간의 논쟁이라는 사실임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이재호>

「전국제2캠퍼스 연합」 발족

오늘 건대충주캠퍼스에서, 10개대 참여예정

「전국 대학교 제2캠퍼스 총학생회「연합회」 (이하 제2총련)건설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오늘 오후2시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 열린다.

이날 결성식을 갖는 「제2총련」은 87년 2학기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 「8, 15남북학생회담」 당시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세차례에걸쳐 예비접촉을 가진바 있으며 지난 8월23일 (화) 중앙대안성캠퍼스에서 회칙제정등 발족에 관계된 세부사항을 논의하였다.

이에대해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복지부장 박수만군 (서문·포어4) 은 『아직까지 제2캠퍼스에 대한 성격도 확립되지 못하고 학교측 역시 제도적, 행정적측면에서 심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제2캠퍼스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사회적 인식의 극복을 위한 연대사업기구의 필요에따라 「제2총련」을 발족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제2총련」은 본교를 비롯한 고대 조치원, 건대 충주, 단대 천안, 경희대 수원, 동대 경주, 상명여대 천안, 연대 원주, 중대 안성, 한대 안산캠퍼스등 총10개 대학이 발기인 서명을 한 상태이다.

서울, 학생처 합동기업 설명회

서울캠퍼스 학생처는 「합동기업설명회」를 9월14일(수) 오후1시30분 대학원 소강당에서 개최한다.

졸업준비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날 설명회는 대한항공, 한진, 국민은행등에서 회사설명을 하게된다.

「대학생문화…연합건준위」 발족

"구속예술인석방" 주장

지난 9월7일 (화) 오후3시 「대학생 문화예술운동연합 건설준비위원회 발족식및 문화활동 탄압규탄대회」가 통일광장에서 열렸다.

서울지역대학 47개 문화패 1백50명이 참석한 이날 발족식에서 초대의장으로 선출된김창수군 (서울대 졸패 「한사위」 소속) 은 발족결의문을 통해 ▲각패체별 운동론및 예술이론연구▲학생대중의 단결, 교육경취 투쟁과▲파쇼와 미제의 반민족문화와 정책을 폭로하는 사업을 벌여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1부순서에 이어 현 문화운동 탄압에 대한 사례보고와 투쟁선언문 낭독순으로 진행된 2부순서가 끝난후 학생들은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사상·표현의 자유 쟁취하자」 「구속된 문화예술인을 전원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내행진을 벌였다.

용인 13일까지복지장학생선발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복지위원회는 복지장학금 신청서를 오는 9월15일 (목) 까지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복지위원회에 비치된 신청서, 과회장 추천서와 학업성적표, 재산세 납부증명서등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실에서 한다.

이번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총35명으로 단대별로 보면 서양어문대 15명, 동양어문대 9명, 문리대 4명, 인문대 3명 사회대 4명이며 1인당 지급액은 20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9월12일 (월) 부터 16일 (금) 까지 해당 단과대학 교학과에 하면된다.

D, D+ 교과목 재수강 허용

이번학기부터 이미 취득한 교과목 재수강불허문제가 D, D+ 취득교과목에 한하여 허용된다.

단, 재수강교과목은 A이상은 인정되지않고, 해당학년 최대 이수학점을 넘어서는 안된다.

한주도

▲전두환 올림픽개막식 불참한다고
—보낼수 (?) 있었는데…
▲서울올림픽 4일후 개막
—분단고착화 4일전
▲학원민주싸움 본격돌입
—고진감래 (苦盡甘來)

제26회 외대문학상 작품모집

치열한 문학정신으로 우리를 부단히 깨어나게하고 살찌게하는 외대인의 글을 스물여섯번째 외대문학상이 기다리고 있읍니다.

마감 : 10월 31일

▲모집부문 : 시 (3편이상) 소설 (60매내외)
평론 (50매내외) 번역 (60매내외)
희곡 (매수제한없음)
▲접수및문의처 : 본보 학생기자실
(서울 : 학생회관203호
용인 : 학생회관212호)
▲심사위원및 상금 : 추후발표

외 대 학 보

진리·평화·창조

2,000年代를 이끌어 갈—外大
24,000여 동문들은 5대양 6대주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읍니다

세계를 호흡하는 개성있는 멋진 종합대학니다.
학문의 성숙성을 갈조하는 열려있는 대학입니다.
24개 외국어 분야와 인문, 사회·자연과학계열 및 사범계분야의 학과를 설치하고 있읍니다.
부 전공제도와 복수전공제도를 확충, 모든 학생이 2개의 분야를 전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의 국·공립, 사립대 대학교와 교육 교류협정을 맺어 학문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읍니다.

● 어문학분야
영어과·불어과·독일어과·노어과·서반아어과·이태리어과·포루투갈어과·화란어과·스웨덴어과·헝가리어과·루마니아어과·체코어과·핵가리어과·유고어과·중국어과·일본어과·인도네시아어과·인도네시아어과·아랍어과·태국어과·베트남어과·인도어과·이디어과·터어키어과·스와힐리어과
● 인문, 사회과학분야
철학과·사학과·언어학과·정치외교학과·행정학과·신문방송학과·법학과·무역학과·경제학과·경영학과·경영정보학과
● 사범계분야
영어교육과·불어교육과·독일어교육과·한국어교육과
● 자연과학분야
수학과·물리학과·화학과·전자 계산학과
● 대학원과정
대학원·무역대학원·통역대학원·교육대학원·경영정보대학원

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사설

다시 맞이하는 학원민주화투쟁

—모든 외대가족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

지난 9월7일부터 10일까지 4차례에걸쳐 학교측과 교섭을 가졌던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는 12일을 기해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매년 열병처럼 대학가를 강타하는 「학민」의 열기가 지난해 30개조합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총파업이 거론됨은 근본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에 기인한다. 어느해보다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지난 「학민」 싸움이 몇가지의 성과물을 얻기도했지만 이치럼 근본적문제가 치유되지 못했음에는 몇가지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학민」 당시, 분열된 지도부의 모습과 비과학적, 즉각적인 공허한 사업의 일관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이후 약속조항에 대한 후속작업을 전개할 책임신의 결신을 가져 왔으며, 이로인해 계속적인 투쟁이 없이 일회적인 연례 행사로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외에, 왕산과 이문의 문제인식에 대한 시각이 통일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유야무야 되었던 점, 교수와의 계속적인 대화가 없었다는 점, 학원의 문제들학생 자체내의 복지 문제에만 국한 시켰다는 문제점들도 들 수 있다.

때문에 이번 「학민」의 방향성을 거론함에 있어서 이러한 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보다 과학적인 사업 방법으로 학민주체를 설정하고, 사전·사후 철저한 준비와 장기적인 책임을 질수 있는 자세를 견지 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볼수 있다. 또한 투쟁양식에 있어서 좌편향적 오류와 음모적 사업방법을 지양하고 대화와 투쟁의 「통일적 투쟁양식」을 설정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번 학민 역시 몇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학우들의 지지와 열기가 확산 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총파업을 결의함은 자칫 공허한 외침이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번 학민을 중단하자는 것은 아니다. 분명지난해의 약속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준엄히 지적해야 하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학원내의 비리와 비민주적인 모든 문제는 시정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학민을 거론함에 있어서 몇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진정한 학원의 민주화는 단순한복지차원에서만 그쳐서는 안되며 학원을 억압하는 비민주적 요소, 즉 일부 투능·부패·해바라기성 교수들의 최결과, 정치권력등 조직적인 폭력에 굴종하려는 학교당국의 자세개선, 그리고 학문과 사상의 장(場)이 되어야할 학원을 몇몇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재단에 보다 확고한 대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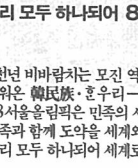
학원에 내재한 제 모순이 최결되기 전에는 「학민」을 중단할 수없다. 대학의 생명을 진리탐구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할때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찾기위해서는 일만이천 학우들을 비롯한 모든 외대 가족의 참여가 필요하다.

피맺힌 화만

신「반탁」열기

▲현재 인간사회에는 모순이 존재하며 이러한 모순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투쟁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회의 제현상에 대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배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막강한 언론매체를 통한 이데올로기공세는 이러한 원칙을 많은부분 어긋나게 한다. 피지배자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자신이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것을 망각하게되고심지어는 지배자와 착취와 수탈을 공고화하는데 복무하기도 한다.



우리의 역사속에서도 지배자의 논리에 강요당해 외세로부터의 해방과 봉건구조의 개혁이 늦추어져온 예를 종종 볼수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미군이 한반도에 발을 디딘후 같은 해 「모스크바 3상 회담」에서는 임시정부수립과 5년 시한의 신탁통치안이 제안되었다. 이 안을 미국이 이미 「남한의 식민지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발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신탁통치」 만을 부각시켜 왜곡 편파보도를 하고 이에 편승한 이승만 친미 반동세력들이 반탁시위를 주도해 나감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반도의 해방이 반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반탁운동」은 현재에 와서 한반도를 미제의 식민지로 만드는 큰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는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4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후손들은 또 한번 「반탁」의 오류를 범하려 하고 있다.

▲세계평화의 축제라고 불리우는 올림픽이 4일후 한반도의 남쪽에서 치뤄진다. 국민들은 이번 올림픽만 치루면 선진국이 된다고 하니 다들 부사히 치뤄지기를 바라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올림픽에 대한 판단은 미국의 지배를 안정화하고 세계로부터 한반도에 투개외 국가가 있는것을 인정받는 결과를낳게된다.

▲우리 사회에 계급이 발생하면서부터 지배자 속일수는 계속되었고 선하고 순박하기만한 민초들은 서배자들이 부르는 장송곡에 어깨춤을 추어왔다. 4일후에 지배자들은 분단 올림픽을 통해 「민족통일」을 장사(葬事) 지내려 하고 있다.

분단올림픽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인식과 공동올림픽 쟁취투쟁만이 영구분단과 미국의 지배를 막고 「반탁」의 오류를 또다시 범하지 않는 길일 것이다.

<문>

88올림픽과 남·북관계의 변화

노 중 선

〈역사문제 연구소 연구위원〉

Ⅰ. 들어가는 말

올림픽의 기원은 본래 고대 그리이스에서 이웃하고 있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서로 다투며 지내다가 어느 시기에 싸움을 멈추고 싸움도구들을 던져버린채 이웃나라들끼리 화해와 친선을 다지기 위해 운동경기를 개최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같은 고대 그리이스 올림픽의 평화와 화해정신을 계승하여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 또는 개인은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는다는 국제평화운동의 차원에서 1896년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 열린이래로 24회 올림픽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올림픽이 진행되어 오면서 그 기본 이념인 평화의 정신은 변질되어 강대국이나 특권민족이 자기들의 세력과 힘을 과시하는 기회로 이용되기도 하였고 19세기말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스포츠의 상품화 현상은 올림픽운동에도 영향을 미쳐 여러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는 1936년 베를린대회가 「평화」라는 이름아래 독재자 히틀러를 중심으로한 소수 군국주의자들의 본질을 은폐 강화하는 정치선전에 이용되었던 사실이다. 그리고 80년대에 이르러서는 모스크바와 로스앤젤레스대회가 반쪽 올림픽으로 되면서 올림픽 자체의 존립여부와 그 필요성이 전면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라도 88서울올림픽은 우리의 분단현실과 관련하여 생각할때 반드시 남북의 민족화합이 이루어져야 했고 남북단일팀이구성되어 올림픽의 근본이념인 화해와 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로 되어야만 했다.

Ⅱ. 공동올림픽과 통일

그리하여 88올림픽을 계기로해서 분단상황의 고착화를 타파할 뿐만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간의 적대적 대결 의식을 극복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하여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민족구성원 각자의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느끼도록하여 한반도의 통일기운을 촉진시켜야만 하였다.

그러면 만약 올림픽이 남북민족의 공동참여하에 개최되었다면 구체적으로 민족통일 촉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가 있었겠는가?

첫째로 공동올림픽이나 남북단일팀구성은 분단이후 40여년을 분단 고착화 일변도로 지속되어온 남북한간의 적대적 대결관계에 획기적인 유연성을갖게할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는 40여년 이상 남북간에 누적되었던 상호불신과 대립의 상태에서 벗어나 사상과 체제가 다르더라도 가능한 영역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힘을 합하면 민족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중한 체험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같은 성과를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면 머지 않아 우리의 남북민족도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을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고 또한 공동올림픽 그 자체가 곧바로 통일로 연결되는 바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북대화나 이산가족재회등은 물론 각종 남북교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올림픽 개최는 단순한 체육교류의 차원을 넘어서서 남북의 민족구성원이 단결된 힘으로 중대한 계기를 만들어 냈다는데에서도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현정권이나 일부의 사상들은 공동올림픽이 북한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것은 그동안 남북관계를대립 경쟁의식을 가지고 파악하는데서 비롯된것으로 통일을 전민족이 평화적으로 화합하여 자주적 민족국가를수립하는것으로 보지않고 어느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통합하는것으로 파악하는 사고방식의 산물이라고생각된다.

물제로 공동올림픽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체육회담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남북간의 견해차를 좁히고 합의점을 찾아내어 남북한 공동올림픽을 개최한다면 북한측도 올림픽 성공에 공동운명체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북으로부터의 어떤 위협과같은 부담도 전혀 없을 뿐만아니라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외국의 군사력이 동원될 필요나 그 구실을 줄 필요도 없거니와 특수요원이 다수동원되는 테러방지단도 그 수를대폭줄일수있을것이다.

따라서 공동올림픽은 새로운 군사적 긴장조류를 저지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민족통일을이루는데 결정적 장애요인인 군사적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출발점이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같이 공동올림픽이 평양의 세계청소년체육대회라든가 기타 어떤 세계적 규모의 체육행사를 하게 될 경우는 남북이 공동주관하고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가 실현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것이 경직된 남북문제를 유화시키는데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그것은 곧 민족의 통일에 전진적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Ⅲ. 올림픽 개최에 대한 남·북의주장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올림픽의 근본정신에 입각한 명분으로 보거나 분단민족의 현실적 요청으로 보나 공동올림픽 개최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로스앤젤레스대회가 반쪽으로 치루어지면서 소련, 동구권, 비동맹 여러 국가들이 올림픽운동의 기본이념을 지키자는 제안과 함께 서울단독올림픽에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올림픽문제를 지지하게 되었다.

이에 1984년 12월 IOC위원장은 『만약 남북한에서 요청이 있다면 스위스로잔 등에서 남북회담을 주선할 용의가 있다는게 IOC의 입장』이라고 체육회담에 대해 최초의 공식적 제의를 밝혔다. 이같은 IOC주선으로 1985년 10월 제1차 체육회담이 개최되어 남한측은 ①핸드볼, 배구, 농구, 축구 예선경기 일부의 북한지역 배정 ②사이클단체도로경기의 남북한 지역 연결경기 실시 ③개·폐회식에서의 남북한 선수단 합동입장등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고 북한측은 ①대회 명칭을 「조선올림픽경기대회」로 하고 ②경기는 절반씩 나누어서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하며 ③남북이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 공동조직위를 구성하고 ④개·폐회식은 합당된종목에 따라 서울 평양에서 갖는다. ⑤자유로운 왕래를위해 서울·평양간의 철도를 연결하고 여객선항로와 항공편도 개설한다 등의 공동개최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같은 남과 북의 제의에대해 IOC측은 남한측에게는 경기종목추가 할애를 종용했고 북한측에게는 공동개최 주장 철회를 제의하였으나 결국 결과는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후 1985년1월에 제2차, 1986년6월에 제3차, 1987년7월에 제4차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남북양측은 제의내용에 부분적으로 변화를 보였을뿐 남한측과 IOC는 실질적으로 서울단독올림픽이나 분산개최를 고수하고 있었고 북한측은 공동올림픽을 주장하고 있음으로 해서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Ⅳ. 맺음말

이렇게해서 현대올림픽은 평화세계의 건설, 순수한 스포츠제전이라는 이념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북의 민족적 화합을 이루어내지 못한채 올림픽사상최대규모라는 세계적 대제전이 우리민족의 아픈 분단현실속에서 거기에 결맞지않게 「세계평화의들의 즐거운 축제」로 개최되게 되었다.

올림픽이라는 체육행사를 통해서 상호불신과 대립을 극복해 나가자는 세계사적 요구가 주류를 형성하는 오늘 그 어느때 보다도 인류의 평화애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세계적 조류속에서 명색이 평화의 대제전이라면서 같은 민족끼리의 화합을 이루지 못한 행사를 주관하는 민족에게 과연 축제일수가 있겠는가? 또 민족의 통일이라고 하는 절실한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는 분단민족이 평화의 대제전을 주관하면서 그 제전을 스스로의 민족분단 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내지 못한 올림픽이 이 민족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계적 평화대제전을 이 분단된 아픔의 땅에서 우리 손으로 주관하면서 그 세계적 평화사업과 민족화합을 위해 서울·평양간의 철도를 연결하고 여객선항로와 항공편도 개설한다 등의 공동개최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같은 남과 북의 제의에대해 IOC측은 남한측에게는 경기종목추가 할애를 종용했고 북한측에게는 공동개최 주장 철회를 제의하였으나 결국 결과는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후 1986년1월에 제2차, 1986년6월에 제3차, 1987년7월에 제4차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남북양측은 제의내용에 부분적으로 변화를 보였을뿐 남한측과 IOC는 실질적으로 서울단독올림픽이나 분산개최를 고수하고 있었고 북한측은 공동올림픽을 주장하고 있음으로 해서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Ⅳ. 맺음말

이렇게해서 현대올림픽은 평화세계의 건설, 순수한 스포츠제전이라는 이념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북의 민족적 화합을 이루어내지 못한채 올림픽사상최대규모라는 세계적 대제전이 우리민족의 아픈 분단현실속에서 거기에 결맞지않게 「세계평화의들의 즐거운 축제」로 개최되게 되었다.

올림픽이라는 체육행사를 통해서 상호불신과 대립을 극복해 나가자는 세계사적 요구가 주류를 형성하는 오늘 그 어느때 보다도 인류의 평화애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세계적 조류속에서 명색이 평화의 대제전이라면서 같은 민족끼리의 화합을 이루지 못한 행사를 주관하는 민족에게 과연 축제일수가 있겠는가? 또 민족의 통일이라고 하는 절실한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는 분단민족이 평화의 대제전을 주관하면서 그 제전을 스스로의 민족분단 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내지 못한 올림픽이 이 민족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계적 평화대제전을 이 분단된 아픔의 땅에서 우리 손으로 주관하면서 그 세계적 평화사업과 민족화합을

최근 주체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반 사회적 상황과 반복한 이데올로기의 높은 장벽에 막혀 아직 논쟁다운 한 논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니다. 그러나 북한사회를 이해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열쇠인 주체사상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한 비판—반비판의 논쟁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아직은 논의의 수준이나 지식의 양이 얕을지라도 계속적인 논쟁작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극복 될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글은 지난호에 대한 반박는문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용기있는 참여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김 용 우

〈서양·서반아어 4〉

주체사상 비판의 관점 정립을 위한 소고

김일성 주의 남한의 유신체제 성립기에 절대화된 이념… 한반도의 정치역학 관계속에서 살펴야

주체(자주)외교는 등거리외교의 변형에 불과해 성장하는 민중운동속에서 실증적 평가 있어야

Ⅰ. 들어가는 말

인간의 사상을 제한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반역사적 죄악으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동시에 인간의 사상과 견해를 여연 교조에 따라 획일화하려는 시도 역시 가장 야만스럽고 반문명적인 폭력으로 여겨져야 한다。가장 자유로워야 할 인간의 여러 사고 방식과 견해를 어떠 법과 제도로, 혹은 물리적 폭력으로 가로막을 수 있단 말인가?하긴 그와 같이 야만적이고도 반역사적인 시도가 횡행하던 시대가 있었다。흔히 압록의 시대라 불리우는 서양의 중세 봉건 사회에서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던 중세기독교가 그러했고, 진시황의 분서갱유가 그러한 법주의 대표적 죄악으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이 자신이 처한 현실로부터 그 진실을 말하고, 그 개선을 위한 이러저러한 견해를 표현하고 자하는 열망을 폭력이나 권위를 빌어 영구히 잠재울수는 없다。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든 간에 그러한시도는 역사에 대해 반동적이며, 함상 다수 민중에 대한 소수자의 권력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의 역사는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사상의 자유 ! 그것은 진리와 해방을 위한 투쟁의대장정이다。그것은 압제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민중의 열망에 기초하고 있으며, 진리와 진실을 밝혀내고자하는 투쟁의 외지를담고있다。

그러므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반역사적이며, 반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중적인 야만적 법죄로서 배격되어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이 구시대적일 뿐더러 반문명적인 야만적 폭압에 기초한 사상적 탄압이, 20세기 후반,분단 이후의 40여년 동안 한국 사회내에서 공공연히 자행되어 왔다。때론 정치적 반대자들을 『간첩』, 『불순분자』의 죄명으로 감옥에 가두거나,재판 끝에 극형에 처하였다。진실을 전하는 언론이 권력에 의해 폐쇄되었으며, 책은 출간을 금지당하곤했다。권력의 서슬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결대적인 침묵이 강요되었다。

간혹 술김에 화풀이를 하다가도 아무도 모르는새 열어와 틈이 되곤하는 소위 『막걸리 반공법』이 판을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 권력은 민중의 전면적인 저항에 의해 전면적으로 붕괴할수밖에 없는것이다。이제 그러한 기운이 서서히 성숙해 가고 있다。민주화에대한 민중의 요구는 이제 숨길수없는 현실이 되었고 아무도 거역할수없는 역사적 사실로 정립되어가고 있다。

극도의 반공 안보 논리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운동권내 일부에서 이른바 『주사』가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흔히 그렇듯이 절대적인 폭압 하에서는, 이를 타개하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진보적 세력내에 급단의 사조에 대한 승배가 쉽사리 나타나곤 한다。오랜 기간 압제에 저항해 온 투쟁의 맥락과 결합하기 보다는, 권력에 의해 금기시되온 어떤 『획기적』인 방식에 쉽게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등장하기 마련이다。80년 5월 광주 민중의 항쟁을 총칼로 진압하고 전두환 정권이 등장한 이후,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린듯 칠흑 같은 어둠의 틈치가 계속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민중의 저항 역시 그 명맥이 끊어져 버린 듯했다。

주사에 대한 전파는, 처음에는 그러한 폭압속에서 온힘히 아주 소규모로 소개되는 정도에 불과했다。그러다가 85년이후 그것은 운동권에 전면적으로 제기되어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한 권력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 의해서도 이단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체사상은, 처음에는 기형문화접 북한의 실정을 소개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그러다가 운동권내에서 팜플렛의 형태로 처음 등장한것이, 소위 『졸성론』 분야였다。

북한에 대해 전혀 무지에 가까웠을 뿐아니라 통일 문제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있던 지하운동권에게 그것은 커다란 충격이었다。스탈린 시대에 절대적 폭압에 대해 좌절하고, 또한 운동사까지 새로 쓰여질 것이며, 그 작업은 이미 착수되었다고한다。

스탈린 시대에 쓰여진 공산당사에는, 러시아혁명의 한지도자였던 트로츠키에 관해 아예 삭제해 버림으로써, 러시아 혁명의 역사에서 트로츠키의 존재와 그 흔적까지를 아예 말살하였다。우리는 사실 스탈린이 쏘비에트국내정책에서 범했던 과오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 거의 알수 없는 형편이었다。그러나 한국의 분단 현실과 관련해 볼때, 그리고 세계 혁명 운동사에서 국제주의 정신이 현신짝처럼 내팽겨쳐졌던 점과 관련해 볼 때, 이제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은 보다 전면적이고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라 생각된다。

스탈린주의의 특징중에서 주요한 골자를 이루고 있던 영역은 민족 문제와 군사론 분야를 꼽을 수 있다。민족 문제에 대한 스탈린의 견해는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와 민족문제』 등에서 제기되었으며, 나중에 쏘비에트 대조국 수호론 (혹은 쏘비에트 기지론) 으로 발전하였다。또한 스탈린의 군사학적 전략·전술은은 『레닌주의의 기초』 에서 정립하되었으며, 코민테른 시기에는 반파시즘 인민전선 전술론으로 나타났다。특히 식민지 민중의 투쟁에 큰 영향을 미쳤던 코민테른의 정책과 그 지침이 되었던 스탈린의 개작 『레닌주의의 기초』는, 호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 이후 오류로 인정되고 그의 다른 저작과 함께폐기되었다。

(국내에 『코민테른과 세계혁명』이란 표제로 번역되어 소개된 코민테른의 역사및 스탈린식 레닌주의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좀더 주의할 필요가있다)

스탈린의 민족주의적 관점은 쏘비에트대조국 수호론 (스탈린의 모토는 『일국 사회주의』 전략) 에 압축적으로 나타난다。그는 세계무대에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하고, 그러한 선상에서 제국주의 국가들간에 식민지 재분할 전쟁이 일어났던 제2차세계대전 시기의 기본성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세계 민중의 해방 투쟁을 진일보시키기 위하여 소련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러한 시기에 쏘비에트 연방을 수호하기 위해 각국외사회주의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으로 국해하였다。그는 진실로 국제주의와는 거리가 먼 대러시아 국수주의자였다。그리하여 2차대전의 성격을 쏘비에트를 위협하는 히틀러 파시즘의 침략 전쟁으로 환원시켰다。그리하여 코민테른을 통해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쏘비에트의 친위대로 재편하였다。

그것은 반히틀러 연합 전선의 한당사자였던 미·영·프랑스 등의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자국의 또다른 파시스트에 대한 투쟁을 포기하도록 세뇌시키고 강요하였으며, 수많은 식민지 민중에 대해서는 미국을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해방자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독자는 조선 공산당의 우매함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탈린의 그러한 정책들은 전세계 민중해방의 역사를 전진시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명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국제주의의 대의는 이미 땅에 떨어져 버렸다。나찌 독일과의 클란트 분할 협정은 어떠 설명되는가?? 핀란드 침공은 어떠 설명되는가? 더우기 식민지 조선의 분할 점령은 어떠 설명될 수 있는가? (미 제국주의의 침략성만 강조하고 스탈린의 기회주의를 못 보는 것은 충체성의 시각을 결여한 태도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1927년 이후 변질되어 스탈린주의의 오류로 점철된 코민테른의 해산과정에서 보듯 명백한 오류로 판명되었다。소비에트의 이러한 분할 점령 전략은, 제급 투쟁, 피억압 민중의 해방투쟁을 국제적 성과물로 환원하고자 한것이었다。군사력을 통한 소비에트의 방위망 확대를 앞세워 국제주의의 대의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혔던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이후 미소간의 힘의 대결 시대 (타락한 계급투쟁으로서의 냉전) 를 촉진하였으며, 한국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에 크게 기여하였다。쏘비에트는 쏘비에트 군대 (적군) 가 주둔하는 지역내에서만 『해방자』였으며, 그것으로 충분하였다。이 점은 쏘비에트 연방내에서의 억압적 통치와도 별 수 없는 관계에 있다。한편, 스탈린의 이와 같은 군사학적 정치노선은 마르크스의 여러 변증법적 역사과학개념들을 군사 용어와 무질서하게 혼합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 문건이 『레닌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한 사회의 기본적 성격과 그에 기초하여 각계급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 및 충돌 지점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오로지 적(敵)과 아(我)에 의한 세력간의 싸움의 문제로, 군사적 전투 문제로 전략·전술 문제를 추상화해 버렸다。

스탈린주의에 대한 소련 지도부내에서의 최초의 비판은 1956년 제20차 당대회에서 니끼타 흐루시초프가 스탈린통치의 비리와 학정에 대한 폭로의 포문을 연 것이었다。스탈린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수많은 혁명 동지들에 대한 고문과 암살, 투옥의 진상들이 불철저하게나마 폭로되었다。스탈린의 전제적인 통치 방식에 대한 그 나름의 신랄한 비판이 결들여졌다。

그러나, 흐루시초프 역시 스탈린주의에 길들여진, 그리하여 스탈린의 유산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지도자에 불과했다。왜냐하면 스탈린은 한 개인이 아니라 관료제적 제관계의 총체 (암살불) 이었기 때문이다。그의 비판은 주로 스탈린 개인과 스탈린의 통치방식에 집중되어 있었다。사회주의 건설의 올바른 길이 제시되지도 못하였으며, 새로운 시대의 국제주의의 대의가 천명되지도 못했다。그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많은 과제들을 감내할수도 없었으며, 자신이 행하고 있는 비판의 무게를 감당하지도 못했다。그는 비판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 『그러나 스탈린 동지가 이룩한 위업이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은 브레즈네프의 입에서도 그대로 복창되었다。) 비판의 칫점은 흐려져 있었으며, 권력 내부의 파쟁이상의 의의를 찾을수없는 것이었다。그러나 이나마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동구 여러나라에서의 민주화 요구에 불을 당겼다。잘못된 비판과 그로인해 야기된 걷잡을수 없는 사태는 흐루시초프의 실각과 또 다른 스탈린주의자 브레즈네프의 부상(浮上)으로 결말지워졌다。이제 고르바초프에 의해 스탈린시대, 그리고 그 이후 시대 전체에 걸친 재평가작업이 선언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러시아를 병들게 했던 스탈린의 폭압 정치, 흐루시초프의 주관주의 그리고 브레즈네프의 관료주의를 비판하고,열정과 생기가 넘치던 레닌 시대로 돌아갈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그의 『개편』 및 『공개주의』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는지 불확실하므로 좀더 지켜본 후 평가를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편, 스탈린주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동아시아 지역이었다。한국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지원으로 성립된 동남아 각국의 반공 정권은 필리핀의 막사이사이 정권이 자행했던 것처럼 무자비한 공산주의자 소탕 작전을 대규모로 실시하였다。

코민테른 정책에 길들여졌던 각국의 스탈린주의 공산당은 탄핵성을 상실한 채,무자비한 탄압에 쿼멸되고 말았다。가장 비극적으로 스탈린주의를 청산당하였던 것이다。

북한은 전면적인 스탈린 비판에 흔하고 있었음도 주목할 만하다。

유일사상으로까지 절대화되었던 주체 사상, 그것은 모든 사회와 역사의 현상들을 설명할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그 경제주의적 본질이라는 동전의 다른 한 쪽으로써 주관적 의지를 객관적 현실에 강요하려 했던 스탈린주의의 『최고단계』이자 아마도 최후의 심화된 형태로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주체 사상을 비판하는 올바른 시각

주체 사상에 대한 총괄적인 비판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다。여기서는 다만 주체 사상이 제기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만 간략히 검토해 보고, 이를 기초로 문제의식을 갖게되는 정도에 한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주체 사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들어가기 위한 기본적 문제의식의 역사적 토대를 생각해 본후, 비판의 올바른 관점과 비판의 체계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2차대전이 끝난 후, 세계는 미국의 외도와 스탈린주의의 오류가 상호 작용한 결과, 양대 진영간의 힘의 대결 체제가 성립되었다。그것은 한국 전쟁을 계기로 더욱 심화되었으며, 또한 한반도는 미소간의 가장 첨예한 대립 지점으로 위치지워졌다。한편, 사회주의 국가들내에서도 관료 분파들간의 대립으로 국제적 연대의 틀이 파괴됨에 따라 중심이 흔들리면서 중국과 소련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중·소 대립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그런 와중에서도, 전쟁으로 초토화된 경제를 부흥시키기에 여념이 없던 북한으로서는 중·소간의 대립이 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다。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조선로동당 (이하 노동당으로 약칭) 은 국내적 파업의 수렴을 위해 중·소간 분쟁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개입하지 않고, 편들지 않는 등거리 외교 정책—김일성주의자들은 굳이 『자주 외교』라는 말적 민주주의 확립에 그 대립을 어떻게 잘 활용했는지는 자세히 알수 없다。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 노동당의 대외 정책을『주체 외교』라고 까지 격상시키는 것은 최소한 만을 말하려라도 지화자찬이다。

한편 이 시기 남한에서는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민족 중흥』, 『민족 주체성』, 『민족적 민주주의』 등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던 시기로, 심심찮게 민족주의 시대가 일었던 때이다。

바야흐로 남과 북에 공히 민족주의시대가 개막되었으며, 민족주의 경쟁이 진행되었다。이것은 식민지 잔재가 남아 있고, 식민지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 민족주의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공통의 과제였음을 반영한다。남에서는 경제개발을 내세운 박정희 정권이 반공 정책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었고, 북에서는 주체외교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방식으로 이 과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었다。바로 이 시대에 주체사상이 스탈린주의라는 『낡은 문서의 개정판』으로 주창되게 된다。

전후 복구와 경제 부흥에 어느정도 성공한 북한은 베트남 혁명에 고무받아 60년대 말 및 차례에 걸쳐 적극적인 대남 무력시위를 감행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한편,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계획이 많은 문제와 저항에 부딪히게 되자 그 나름의 민족주의를 표기하고 대미·대일 외존을 심화시켰다。이에 대한 민족적 반발은 반공 이념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려하였다。북한의 무력 시위 역시 반공이념에 기초한 국내의 정치적 억압을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이러한 한계와 문제점들은 남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모종의 전환점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7·4공동 성명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이를 계기로 하여, 당시 1971년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시비를 일단락시켰다。한편, 노동당은 제5차 전당대회에서 그간 대남 전략의 한계를 절감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전환하였다。(남한에서의 역사적 과제가 반제·반봉건으로부터 반제·반파쇼 인민 민주주의적 과제로 전환하였다고 결정함) 그러한 토대에서 7·4공동 성명을 계기로 노선 전환에 따른 동요를 막고 유일적인 지도력을 강화하였다。

7·4공동성명이 결렬되고나서 남한에서는 박정권의 극단적인압제체제인 유신체제가성립되었다。한편 북에서는 주체사상이 강화되어 유일사상으로까지 절대화되기에 이른다。주체사상이 하나의 절대적인 사상체계로까지 격상되고공식화된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주체사상이 성립되게 된 역사적 배경이자, 주체사상이 형성, 발전하게 되는 사회적 토대에 변화과정이라 할수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토대의 변화 과정, 구체적인 한반도 전체의 현대사, 특히 그 정치적 역학관이에 대한 이해없이 주체사상을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남한의 사회발전과정이나 민중운동의 흐름을 남한 사회단독으로 분석하는 것이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은 좀더 확대한다면, 세계가 이미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일방의 원리에 의해 규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그 두 가지는 상호 맞물려 서로 침투하면서 변화·발전한다。다시 말해 두 가지 원리에 의해 규정되면서 상호 침투하는 현실을 복합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것은 이 두가지 원리를 초월한 어떤 제삼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서로 대립하고 또한 서로 침투하면서 변화·발전하는 현실, 현시대민중 해방의 국제적 대외에 근거하여 구체적 현실이 조망되어야 함을 의미할 뿐이다。흔히 국익을 내세우며 사실은 소수 지배계급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현실이나 일국적 또는 민족적 현실에서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현실에서 총체적 진리를 규명한 토대위에 각국의 민중 이익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그러한 무산자적 국제주의의 시각에서 노동당 또는 주체 사상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져야하며 한국 민중운동의 이념적 지표가 정립되어야 한다。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사회의 경우 이러한 관점의 정립은 더없이 긴요하다。

운동권내에 소개되어 있는 이른바 주체 사상은 아주 단편적인 편린들이 뒤섞여 있다。유일사상, 주체 사상, 졸성론, 대중노선, 대동단결주의, 반미 자주화 투쟁론, 고려연방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등등, 그리고 이를 주장하는 문건들 역시 일관성 없이 일부분만을 편리한 대로 인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앞서 말한 바, 우리의 이데올로기적 상황과 내적인 대응 근거의 부재 때문이다。이에 따라 주체 사상에 대한 비판 역시 마찬가지로 뒤얽혀 있다。서로다른 측이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평행선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초기레닌의 러시아 상황을 들어 주체사상의 또다른 측면을 공격하거나,정세적인 전술 문제를 가지고 과결상의론제로 비화시키곤 한다。주체 사상이나 그에 따른 이론체계를 역사 무대로부터 떼어내 추상적인 철학 논쟁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러한 잘못된 비판의 공통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이는 의식의 존재에 대한 피구속성 명제를 상기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비판들은 이제 하나의 체계를 세우는 토대 위에서 총체적 비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유물 변증법과 역사 유물론 등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주체 사상의 이해, 노동당의 강령과 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구체적인 전술 및 조직, 행동 (활동 방식) 상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들간의 상호관계 등이 총괄적으로 해명되고 비판되어야 한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비판이 단순한 비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이러한 전체적인 작업을 한꺼번에 해낸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이다。그러나 개개의 크고 작은 주제와 주장들에 대해서도, 그 위상을 제대로 잡아내고 구체적 대안으로까지 심화시키려는 노력은 더없이 중요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에대한 비판은 현실적인 중요성을 갖는다。이 개념은 어디선가 왜곡된 점이 보인다。노동당에서의 견해는 4차당대회 기간인 60년대까지는 반제·반봉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으로부터 5차당대회 이후 반제·반파쇼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으로 수정하였다。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은 이를 조합한 것인지, 전자인지, 후자인지를 그 사회발전단계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히 해야할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주의, 주장을 비판한다는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자체를 개조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민중운동의 혁명적 이념을 정립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치지워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알 림

지난 497호부터 연재된 『북한—그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시리즈의 두번째 차례인 『주체사상의 철학원리고찰』이 필자 사정으로 다음호에 실게 되었읍니다。대외적인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지만 주체사상의 체계적 논의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독자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학술부>

▲170미터높이의 주체탑 탑발침대는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상징하는 70개의 돌로 탑전체는 2만5천5백50개의 돌로 되어있음 (사진·공동체 『또 하나의 조국』에서)

「중간층 운동」의 위상과 전망

대중속에 뿌리내리는 "중간층 운동"

정 밝 이
〈서울민중운동연합 사무처장〉

Ⅰ. 들어가는 말

최근들어 우리는 중간층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이를 운동으로 외화시키려는 구체적인 노력들에 쉽게 접하게 된다。

아마도 이것은 지난 6월대투쟁 이후 고조된 중간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과학적인 계급분석을 통해 중간층을 해명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더욱 활기를 띠고있다。

이러한 노력은 각종의 중간층을 기반으로하는 단체들을 결성시키고 있는데 「전강사회실현 약사협의회」,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등의 계층별 조직, 「공해추방운동연합」, 「AIDS추방 비상공동대책위원회」등 사안별 조직,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의각 구지부, 서울민중연합의 5개 지역위원회, 기타 다른 종교및 사회단체의 지역조직등 대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있다。

본 글은 이러한 중간층 운동의 확산에 즈음하여 한국사회 변혁운동에서 중간층 운동이 갖는 지위와 역할을 해명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준비되었다。 이후로는 중간층이란 무엇인가?, 중간층 운동의 지위와 역할, 중간층 운동의 형태와 사례, 중간층 운동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전개시키고자한다。

Ⅱ. 몸 말

1. 중간층이란무엇인가

본 글에서는 중산층이라는 용어 대신에 중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한다。

그 이유는 중산층이란 용어가 사회적 부 의 불균등에 대한 계급간의 갈등, 대립을 완화, 은폐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계급분석의 관점에서 볼때도 과학적이지 못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간층이라고 하면 지배계급이나 피지배계급의 사이에 공법위하게 존재하는 제 계층을 의미한다。 이를 학계에서는 「다양한 쁘띠부르조아」라고 표한다。 중간층은 단일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계급적 상태나 계급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있는 집단이다。

중간층의 구성은 도시의 전통적인 중간층(구중간층)과 신중간층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농민은 독자적인 집단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한국사회의 계급구성을 보면 중간층의 중요성을 명확하게알 수 있다。 1988년의 계급구성을 보면 대략 부르조아지 2%, 신중간계층 12%, 구중간계층11%, 도시반프롤레타리아트 10%, 농어민 21%, 프롤레타리아트 44%(산업노동자 27%, 단순사무원, 판매원 10%, 서비스직 기타 7%)로 추산되어 농민이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신·구중간층은 인구의 23%를 차지하여 거의 산업노동자의 규모에 육박하며 화이트칼라 하층인 단순사무원, 판매원까지를 포함할 때 무 넓은 분포를 보이게 된다。

2. 중간층운동의 지위와 역할

중간층 운동의 지위와 역할은 중간층의 광범한 참여는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었으며 시사하는 바가 컸다。 너무도 오랜 세월을 독재치하에서 살아온 까닭으로 반독재 투쟁의지는 구체적인 계기를 만나자마자 활화산으로 타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중간층 운동의 고무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계급역관계의 변화에 따라 쉽게 동요 이탈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간층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은 그들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지배계급과 그것과도 피지배계급의 그것과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며 이는 변혁운동에서 중간층의 지위를 설정하는데 많은 장애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양면성이 만들어내는 중간층의 허위의식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지난 7, 8월 노동자대투쟁이었다。

6·29선언 직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중간층의 동요, 이탈은 노동자의 투쟁이 본격화된 7, 8월에는 이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여 본격화되었다。 당시의 제도언론에서의 논조가 이를 잘 반영한다。

한국사회 변혁운동에서의 중간층 운동이 갖는 지위와 역할은 이들 역시 독점자본과 제국주의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다는 재관적인 계급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하며 변혁주체세력의 지도력이 중간층의 동요와 이탈을 막아내는 것이 중간층 운동이 변혁주체세력을 올바로 결집,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3. 중간층운동의 형태와 사례

중간층의 존재기반이 단일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계급상태, 계급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중간층 내부에서의 갈등도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층 운동의 형태는 정형화 하기 매우 힘들며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간층에서 농민을 제외시키고 보면 중간층운동의 전체 인구의 7할을 점하는 도시를 그 무대로 하게되며 따라서 그 형태는 일반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중간층을 대상으로 계층별, 직종별 조직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결합하여 연대하고 실천하는 것이 된다。

아직까지는 「지역운동」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사회 전체의 모순의 반영으로 나타나는 지역내의 특수한 모순을 해결하려는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움직임이 확산되고있다。

6월대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상층명망가의 결합이라는 한계로 말미암아 6.29 이후에는 사실상 공전을 보였던「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대중속에 뿌리박으려는 노력으로만들어진 14개의 구지부도 중간층 운동의 예가 될수있다。

또한 서울민중연합의 5개 지역위원회도 대중속에 뿌리박고 대중과 함께 실천하는 조직이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이것도 중간층 운동의 한 예가 될수있겠다。

기타 다른 종교, 사회단체들의 조직사업도 지역주민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많은데 주로 주민신문의 발행, 각종 강연회, 강좌, 시사회등의 개최, 연대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집회등에 참여하는 등으로 자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운동 외에 협정구역에 근거하지않고 계층별이나 직종별로 결집되는 양상도 나타난다。

「전강사회실현약사협의회」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등이그 예가 될수 있으며 최근에 주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있는 화이트칼라 노동운동도 직종별, 지역별 노조협의체를 건설하여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공해추방운동연합」 「AIDS추방비상공동대책위원회」등은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이에관련된 여러조직들이 결집하여 운동을 전개하는 경우이다。

더불어 위에 언급한 다양한 형태의 중간층 운동의 일환으로 최근들어 각종 교육활동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민중연합의 「민족학교」가 개교1주년을 맞았으며 부천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민주학교」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의 「인천민주시민학교」 민청련의 「청년학교」 불교사회교육원의 「불교학당」 「민족여성학교」 한국여성민주회의 「여성교실」 등을 비롯 지방에도 광범위하게 건설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교실, 학교들은 대부분 중간층을 그 교육대상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교육후에는 작은 모임들을 만드는 등 나름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이 제자리를 정착히 잡고 전체변혁운동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이념에 입각하여 조직, 교육, 투쟁을 결합시켜 실천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Ⅲ. 결론을 대신하여

중간층 운동에 대한 여러가지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 중에 서서히 정착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면서 몇가지 아기될 수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망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변혁주체세력이 지도력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이논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중간층 운동이 갖고 있는 한계로 말미암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다음으로는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변혁운동의 3대이념에 충실하면서 이를 구체적인 현실과 조건을 통해 관철해 내야한다。

개량주의나 저차원의 권익투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도 위에 언급한 두가지가 반드시 실현되어야한다。

변혁운동의 보편성을 중간층이라는 특수성을 통해 관철하는 문제는 그 특수성이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반대로 보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도 작용하고 중간층이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한 기반을 갖고있어 이들내부에서 통일성의 획득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로 인해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중간층 운동은 계급구성상의 비중으로 보거나 한국사회의 모순구조로 보거나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중간층 운동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실천되면서 확산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중간층 운동이 지니는 진보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중간층 운동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며 이는 이후로도 더욱 활발한 논의와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운동은 한국사회 전체 모순의 반영인 각 지역내의 특수한 모순을 해결하려는 구체적 움직임이다

▲지난달에 최근들어 급격히 늘어가고있는 청소년들의 자살문제에 관련 「교육협의회」·「청년단체」등이 모여 규탄대회를 벌이고있다。

중간층운동이 갖는 계급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
진보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활발한 실천 전개해야

외대만평

역시 국보(國保)는 국보(國寶)야

기자의 눈

올림픽 계엄령

지난 9월7일 경희대스에서 있었던「전두환·이순자 구속수사및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애국학생 투쟁위원회」발족식을 마친후 교문앞 시위도중 전경들이 발사한 직격최루탄에 「음성총련산하 제 침략저지및 민중생존권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두섭군 (신구·토목과 졸업) 이 왼쪽 후두부를 맞았다。 외식을 입고 쓰러진 신군은 동료들에의해 수원 「동수원 병원」으로 옮겨진뒤강세기 신경외과과장 집도로 1차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맡았던 강세기 과장은 『외식은 분명한 상태이고 일단 72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다행히 최루탄파편이 위험한 곳을 비켜나가 생명에는 지장이없을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두섭군의 사고는 사고장소가 「평화구역」이었고 더우기 발포거리도 5미터 앞이었다는 사실에서 많은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평화구역을 선포하면서 『평화를 위한 세계체제를 수호한다』고 말했었는데 그 평화구역에서 또다시 최루탄을 난사, 부상자를 낸 것은 평화구역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

올림픽을 빙자한 신종계엄령(?)이라 불리우는 「평화구역」 내에서의 피해자는 비단 신두섭군만은 아니다。 평화구역법이 선포된 8월17일부터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도시의 노점상들은 자신들의 생계터전을 짓밟히고 있고, 평화구역에서는 어떠한 집회및 결사의 자유도 말살된채 노동자들이 법이고있는 노동정의가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 탄압받고있어 노동자들이 제권리를 찾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평화구역 안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심검문등을 통해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렇듯 단지 18일간의 축제를 위해 법으로까지 제정된 「평화구역」이 많은 시민들의 생활상의 장애는 물론 생존권 정취요구마저 묵살해 버린다는 것은 어떠한 미명으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평화구역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자성과 함께 시기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내는 법제정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평화구역법」으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입은 신두섭군을 비롯하여 집권층의과잉진압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많은 학생들, 생계터전을 잃어버린 노점상, 육외집회를 했다고 하여 구속당한 노동자들에 대해 철저한 보상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박종진기자>

제2회 진로광고대상 공모에 참여해 주신 대학생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뜻하고 순수한게 좋아.!
진로와인쿨러

수없이 많은 마실 것 중에서 젊음이 찾아낸 최상의 맛 진로 와인쿨러!!!
더 산뜻하게 더 순수하게 이 젊음을 즐기고 싶다.
바로 젊음의 맛— 진로 와인쿨러

● 전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와인쿨러는 한잎 100% 천연 과일의 싱싱함과 탄산의 상쾌함을 잘 조화시켜 더욱 산뜻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순수 와인입니다.

● 진로 와인쿨러는 6도의 순한 와인으로(기존 와인 12도)독한 술이 부담스러운 분과 여성들에게 알맞는 부드러운 술입니다.

매실 포도 사과

● 차게해서 드시면 맛과 향이 더욱 좋아나타.(8℃~12℃)

株式會社 眞露

◇레닌, 「국가와 혁명」, 논장펴냄, 1988 (김영철 번역)

마르크스주의 국가론과 혁명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

이 종 진

〈 점과·점의4 〉

1. 들어가는말

역사와 발전과정은 동시에 세계관의 발전과정임을 증명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성립, 발전하기 시작하던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은 피억압대중을 인간이하로 착취하면서 자신의 지배를—모든 지배계급이 그래왔듯이—정당화시키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사회적 기반과 그 존재결서를 고정불변의 것으로 강요하는 형이상학적 관념론으로 피억압대중의 의식을 왜곡, 굴절시키고 그들의 저항과 투쟁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역사발전과정에서 탄생한 새로운 계급인 프롤레타리아를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격상시키, 또 그들에 기반해서 세워진 세계관, 즉 사적 유물론은 이전까지의 정신중심의 세계관을 뒤엎고 역사발전을 이끌어갈 세계관으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사실 물질의 일차성을 설명하는 유물론은 이전에도있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이전까지의 유물론은 그도 지적했듯이 인간의행위, 즉 실천으로 파악되지 않고 단지 객체 또는 직관의 형태로 살피는데 그쳤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확립된 프롤레타리아 사상은 이후 변혁운동에 실천의 무기로서 사상적 지침이 되었고,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국제공산주의 조직인 제1차 인터내셔널을 주도함으로써 국제 프롤레타리아운동을 이끌었으며 프롤레타리아사상의 보급을 뒷받침하였다. 이로써 마르크스주의는 혁명이론의 대명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국가는 계급간의 적대관계가 화해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계급대립의 산물이다.

국가 (권력) 는 자신들의명령 하나로 사람들을 유혈에 처할 수 있는 육감과 특별한 무장집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권력은 무장한 대중, 자발적인 무장조직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공권력과 세금부과 권리를 한꺼번에 지닌 국가와 관리는 사회의 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단지 사라져가고 있는 국가, 즉 성립과 더불어 즉시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오직 사라져가는 국가만을 필요로한다.』

『루이 보나파르트의 무월 (2월) 18일』을 인용함으로써 레닌은 기존의 모든 혁명은 국가기구를 개선 강화해 왔음을 입증하고 이러한 국가기구의 파괴로 부르조아적 부패성의 뿌적 기반을 제거할 것과 이는 필연적으로 계급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트독재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타도된 국가기구를 대체할 프롤레타리아트독재의 형태는 파리꼼뮨이후 수립된 정부를 분석함으로써 그 가능성분만이 아니라 실제했던 역사적 사실을 통해 밝히고 있다.

파리꼼뮨에서는 부르조아권력의 상비군을 폐지하고 무장한 인민에 의한 상비군으로 대체되었고 관료는 그들을 선출한 국민 소환에 복종하며 국가기관 봉직자의 월급수준을 노동자의 임금수준으로 격하시켜 봉사의 지위여야 할 자리가 권력과 재부로 연결되어 부패의 근원이되는 실질적 요소를 없애버렸다. 이러한 과정을 들러싼, 다시 말해 기존의 부르조아 의회제도와 전인민 차원으로 구성된 대표기구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은 국가의 소멸과 폭력혁명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양 극단만을 용호하는 기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의 이상적 발상은 진정한 마르크스 주의자와 구별되고 결과적으로 정반대의 입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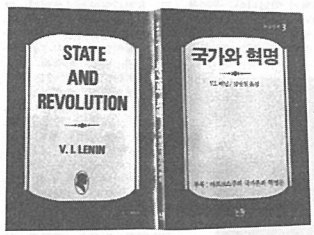
기회주의자는 무정부주의자가 외치는 국가 (기구) 의 타도를 들어 의회제도에 관한 모든 비판을 무정부주의자라고 매도하고 의회정치제도를 벗어난다는 것을 마치 대표기구나 선거원칙을 폐지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국가기구 타도에 대한 물이해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무정부주의자들은 국가의 타도에만 착안해 마치 계급이 폐지되는 사회가 국가기구만 없어지면 즉각적으로 도래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방법론은 새로운 사회를 구상하고 창달하는 점에 있어서 낡은 것을 깨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사회의 탄생과,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이행형태를 연구하는 자세를 철저히 지켰다.

즉, 낡아빠진 관료기구를 일시에 때려부수고 모든 관료제의 점진적인 폐지를 가능케 할 새로운 것을 즉각 세워나간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부르조아 국가권력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의회집단을 전제급의 대표기구로 오해하는 기회주의자나 정치적 국가가 한발에 파괴될 수 있다고 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은 혁명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세계를 변혁시킬 수 없고 심지어 부르조아 국가의 존속에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의회정치제도는 민주적이지 않으며 단지 형식적인 민주주의만을 승인했을 뿐 부르조아 국가를 대표하는 집단으로써, 따라서 국가는 인민의 국가일 수 없고 국가장치에 의해 통제당하는 인민은 국가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주의는 기존질서를 지켜가고자하는 형식이며 이러한 민주주의의 극복은 국가의 소멸과 함께 가능할 것이다. 즉, 정책과 그에 의한 통제는 규칙을 만들어내며 거기 익숙해지도록 인간을 길들여간다. 이러한 질서는, 계급사회에서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묶여 놓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까닭에 인간의 자주성은 말살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무계급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인간을 해방시켜나갈 건설의 과정은 결국 그러한 과정속의 규율을 습관화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실현되는 자주성은 인간의 자유를 점점 더 확장시켜외식적인 것으로써라기 보다는 일상적인 것으로 발화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외식적인) 민주주의는 극복되나가고 이 과정은 자본주의 사회를 모반으로하여 태어나는 1단계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보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로 발전해나갈 과정과 일치하며 결국 국가 (계급 대립의 산물) 는 소멸될 것이다.



이책은 잘못된 세계관과 사상을 교조적으로 해석 하는 제주의 (諸主義)와 편향들이 결국 변혁운동의 장애가 됨을 보여준다

▲국가권력은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부르조아지를 통제하는 「특별한 물리적 강제력」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2. 몸말

『국가와 혁명』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제1장부터 5장까지는 계급사회와 국가의 관계및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필연성을 —주로 루이 보나파르트의 반혁명및 파리꼼뮨등을 중심으로 한 봉기의 경험을 분석했던 마르크스의 저작을 연구, 분석함으로써—밝히고 6장에서는 제2인터내셔널의 지도자 카우츠키를 고발하고 본질을 낱낱이 폭로하여 기회주의자와의 단결을선언하고있다.

레닌은 자본주의 사회가 제국주의 단계로 들어선 시기의 혁명기이며 마르크스주의를 계승, 발전시켰다. 당시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제2차 인터내셔널에 의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지만 그내부에는 기회주의 적요소가 지배적이었던 만큼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었다.

그 기회주의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은 제2인터내셔널을 사실상 와해시켰던 1914년의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카우츠키를 위시한 제2인터내셔널의 지도자들은 조국수호, 공화국수호 운운하면서피억압대중에게 전쟁참여를 호소하작한 저작속에서 국가에 관한 이론의 고찰을 필요로 했다.

3. 맺는말

(초기)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독점단계로 들어선 후 사회주의 진영의 확대와 식민지종속국가 민중들의 민족해방투쟁및 도발적인 팽창정책의 일환인 핵무기전쟁에 반대하는 반전반핵 평화운동으로 인해 세계도처에서 대립되고 고립되어가고 있다.

앞에서 시대의 발전은 세계관의 발전을 동반한다고 하였다. 잘못된 세계관과 사상을 교조적으로 해석하던 제주의와 편향들은 결국 변혁운동의 장애가 됨을 「국가와 혁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밝혀보았다. 이는 우리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수 있을 것이다.

레닌의 사상은 마르크스주의를 풍부하게 하였으며 시대의 실천으로써 혁명성을 강화시켰다. 즉,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사상이 탄생하는 주·객관적조건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실천으로 현화될 때에만이 검증되고 발전할수 있는 것이다.

사상은「혁명적실천」으로 이행될때만 역사 변혁의 임무를 창조적으로 담당할수 있어 계급관의 교조적해석은 변혁운동의 장애물

상반기 대학언론의 기획·특집에 대하여

변혁 위한 아카데미즘과 사실 향한 저널리즘의 모색

서울대 『대학신문』에 「유물변증법과 주체사상」이 실린이후 대학언론에 대한 많은 쟁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성격에 의해 대학 (大學) 이 규정되어지고, 「대학언론」 또한 나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가지게 되는것은 자명하다. 50, 60년대 대학언론이 남만과 추억을 남기던 학교홍보매체로 성장해오다가 70년대 암흑기를 거치며 폭로적 저널리즘으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80년 5월의 경험은 『과학적 이론없이 성공적인 변혁은없다.』는 교훈을 주었고 대학언론은 변혁을 위한 아카데미즘과 사실을 향한 저널리즘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학술적 접근에서 사회구성체논쟁, 변혁노선논쟁, 사회성격논쟁등 제이론투쟁의 모습으로 외화 (外化) 되었다.

패배의식으로 증폭된 지난해를 반성하며 시작된 88년 대학언론상 (上) 의 논의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신문의경우 통일에 대한 기획이 폭넓게 다루어졌고 조직노선 (각부분운동, 통일전선등), 민족민주운동의 이론체계등이 게재됐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나타나는 교지의 경우 분단문제와 자주화운동, 남·북한 현대사등의 문제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지난학기서울대 『대학신문』은 「분단시대 북한사회의 인식」을 기획, 북한문제에 대한 첫 문제제기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관련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채 산만하게 진행되어 실질적성과는 부족했다. 이화여대의 「한반도의 분단극복을 위하여」, 시립대의 「분단문제의 올바른 인식」등 분단과 통일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성신여대, 건국대, 중실대등도 「통일론」에 대해 다루었다. 하지만 지면의 한계와 주제의 지나친 반복등으로 인해 사실상 논의의 진전은 가져오지 못했다.

다만 연대의 「전환기 민족민주운동의 쟁점들」, 외대의 「민족해방, 그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한대의 「창조적 변혁운동을 위한 모색」등의 기획은 이전까지 한국사회 변혁운동에 대한 이합집산적 논의를 체계화시키며 민족해방의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하는등 기획의도를 끝까지 관철시켜나감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교지의 경우 『성균』 40집이 「한국전쟁」과 「한국현대사와 무장투쟁」을 실어 이전의 편협한 논의에 새로운 문제제기를 함으로 많은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전쟁당사자인 남과 북의 현격한 시각차이와 원고 삭제등의 탄압, 집요한자들에 대한 정보통제로 인해 좀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성과를 거둘수는 없었다. 「반종파투쟁」과 「전투적학생회론의 제기」를 게재하면서 많은 충격을 준 『고대문화』 28집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대한 편향등으로 많은비판을 받기도했다. 이에 대해 「29집」을 통해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성격—세계관 비판, 반종파투쟁논의에 대한 비판등을 기획한것으로 알려졌지만, 독자에게로 부터 지친 유리가 계속되는 문제로 남을수 밖에 없다.

경희대 「고황」이 「분단시대 국가와 사회」한신대, 시립대 교지가 「북한사회의 재인식」등을 실어 남북한 현대사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기도 하였으며, 「외대」는 민족해방운동의 뿌리를 밝히려는 시도등이 선보이기도 했다.

공개출판물의 한계로인해 대학언론의 위상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특집·기획물에 대한 반성점이 두드러진다.

먼저, 독자와의 결합에 대해 「서울지역 교지편집인 연합회」 회장인 안치용군 (연세지편집장) 은 『대학언론은 사회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바른시각을 제공해야 하며, 독자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는 구체적인 도구로 시현되어야 한다.』며 독자와 분리된채 이론서로 전락할지 모를 교지나 학보에 대해서「이제 우리에게서 구체적 대상을 호흡해내는 대상성정의 현학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체는 선험하지 못한채 반복되는 주제도 논의가 관전하기 보다는 가시적으로 행함하기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각학교별로 독자적인 화풍을 계승·발전해내야한다. 또 자체필자발굴, 지역운동의 이론적기초가 되기위한 실천적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기본문제를 「민족해방」이라는 관점에서 견해를같이하기도 하지만 아직많은이견들이 존재하며, 한반도에 대한 비과학적 인식이 계급이기주의나 각종교조주의적 편향을나타낸다. 대학언론이 많은문제점과 한계를 노정시키면서도 학술계의 한호름으로 자리잡게 된 지금은 변혁에 대한 확고한 전망을가지고 논의의 집중과, 성과물의 재축적등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것이다.

<류계환기자>

한올의 실에서 첨단 반도체까지-韓一그룹

작은 뜻을 모아 큰 일을 이루는 한일그룹의 기업정신이 산업전반에 걸쳐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읍니다.

섬유·화학을 통해 생활을 풍요롭게
세계 최대규모의 아크릴 생산을 자랑하는 한일합섬.
수출을 통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고급복지 전문백이서
경남모직 등으로 세계속에 섬유한국을 심어 온 한일그룹
이형단면사·도전성섬유 등을 개발해 화학섬유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한일그룹은 선소재섬유·
고분자재료·정밀화학분야에도 적극 참여, 풍요로운
생활을 앞당기고 있읍니다.

레저·스포츠를 통해 생활을 건강하게
스포츠제품과학연구센타를 운영, 품질개선·소재개발 등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일그룹 —
한국의 상표 프로스펙스로 스포츠과학을 실현,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생활문화를 창조해가고 있읍니다.
아울러 하얏트 리젠시 제주와 부산, 통도컨트리클럽 등의
휴양시설과 레저공간을 갖추고 여가선용을 통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첨단 전자기술을 통해 생활을 편리하게
'연구개발(R & D)센타' 설립을 통해 21세기 기술집약
산업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한일그룹 —
각종 통신전자제품 분야에 참여하여 국산화를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한일그룹은 국제적으로도 초기기술단계에
있는 갈륨비소(GaAs)반도체 및 광통신소자 생산을
추진, 고도 정보화시대를 겨냥한 편리한 생활을 앞당기고
있읍니다.

韓一그룹 ●한일합섬 ●국제상사 ●경남모직 ●동서석유화학 ●부국증권 ●하얏트리젠시-제주 ●하얏트리젠시-부산 ●진해화학 ●통도컨트리 ●한호건설 ●한호개발 ●연합물산

기동취재

"누구를 위한 올림픽이며 무엇을 위한 올림픽 입니까"

특집 I

환상에 빠진 서울올림픽

올림픽 주경기장에 성화가 봉송됨날은 일주일여가 남았지만 서울은 이미 지난 8월 17일부터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한 갖가지 외곡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듯하다. 문공부와 서울시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등에서 공연과 전시 그리고 예술축전을 벌이고있다. 외국 선수단, 그중에는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선수들이 김포공항을가득히 메우는 모습, 자원봉사하는 아가씨들의 상냥한 웃음 그리고 올림픽주최국 국민으로서의 환희가 가득담긴 시민들의 모습이 참으로 멋있게 TV를 통해 보도된다.

TV, 신문, 라디오등의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는 올림픽관련의 내용들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지대한 (?) 관심과 환영속에 올림픽이 치루어질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에서도 언급했듯이 시민들에게 올림픽은 그다지 큰 관심사가 아닌듯 올림픽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올림픽 파견 취재중인 일본의 한 기자는 자국으로의 기사송신을 통해 『한국의 정부는 올림픽 준비를 위해 다른 모든것을 포기한 듯하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열굴엔 올림픽에 대한 표정이 없다』고 전했다. 이렇듯 올림픽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올림픽 조직위원회 (이하SLOOC) 는 지난 81년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확정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재정과 인력을 동원하여 행사를 준비해왔다. 잠실지역에 올림픽 주경기장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종목별 경기장과 선수촌, 기자촌, 올림픽 공원, 문화, 위락시설 그리고 올림픽도로 신설, 자원봉사자 확보등에 주력하였고 동구권의 참가를 위해 외교정책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류화합의 대제전」이므로 전세계가 이념, 체제를 초월하여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한다는 때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는 SLOOC의 주장은 누누히 들어왔던 바이다.

또한 「서울 올림픽의 5대특징」이라고 주장되어지는 것을 보면 첫째, 올림픽사상 가장많은 참가국이 참여하여 가장 훌륭한 화합을 이루는 가운데 동서문화의 만남의 자리가 되게하고, 둘째 스포츠와 예술과 학술이 삼위일체(三位一體)로 승화할수 있는 전인류의 문화제전이 되게한다. 세째, 서울잠예자올림픽대회를 지원 동반개최하는 상부상조의 복지지향대회가 되게하고 네째, 획기적인 국가발전과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세계 선진대열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게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모든 개발도상국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성공의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점과 빈민이없는 아름다운 서울

그러나 SLOOC나 정부에서 주장하는「인류화합의 대제전」속에서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는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8월1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노점상 생존권탄압하는 악법철폐를 위한 대토론회및 평화대행진」은 올림픽에서 철저히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의 한목소리가 함성으로 터져 나오는 대회였다.

「88서울 올림픽이 우리 4백만 도시빈민들에게 닥쳐오고 있읍니다. 세계각국의 선수단과 기자단이 서울로 몰려들고 있읍니다. 노점빈민 형제들이여. 도시빈민형제들이여누구를 위한 올림픽이며 무엇을 위한 올림픽입니까?

세계의 축제, 민족의 대축제라고 거품물고 떠드는 88서울 올림픽이 우리 4백만 도시빈민들에게도 진정 축제가 되고 있읍니까? 교활하고 간악한 노태우 군부독재는 5월을 노점빈민들 자진 철거홍보와 계몽기간으로, 6월을 노점 강제철거및 집중단속의 기간으로 정했읍니다. 그리하여 7, 8, 9월을 노점, 빈민들이 없는 아름다운 서울로 만들어보겠다는 철딱서니없는 빈민탄압지침을 세우지 않았읍니까?…」라는 성명서를 남독한 도시빈민공동투쟁 준비위원회(이하 도빈공투준위) 는 방해가 될 것이라며 매일 한지역씩 돌아가며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라고 밝힌다.

이렇듯 정부가 최근 도시노점상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그 명목이 「올림픽을 위한 도시미관 정비」라는 것이다.

성공리 (?) 에 올림픽을 치루려는 정부의 열성은 곳곳에서 하루 4, 5천원 벌이를 위한 노점상들의 생계수단인 노점상들의 리어커를 압수하거나 부수어 버리는 형태로 나타난다. 아예 거리에서 없애버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부터이미 조직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현재는 전국적으로 연합이 결성되어 자체내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준높은 조직을 갖추고 있는 노점상들은 지난 6월부터 노골화되기 시작한정부의 「올림픽을 위한 도시정비」에 거센항쟁을 하여왔다. 이에 따라 6월13일 성균관 대학교 금잔디광장에서 노점상탄압에 대한 대단위 규탄대회를 벌였다.

이들의 단결력 투쟁양상이 이토록 거센 것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올림픽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자신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점상들의 집단시위가 빈발하자 정부는 6월16일을 기해 『물리적 단속을 지양하고 캠페인을 통해 노점상들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8월이 되자 각 노점상들에게「9월1일부터는 오후 6시이전의 노점행위를 금지하며 9월17일부터는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노점활동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으러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노점활동을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음성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내외에 혼

초대받지 못한 손님

독점자본가와 권력층의 정치적 생명연장을 위한 축제
올림픽의 모순심화는 민중·민족적 관점에서 극복돼야

도시빈민들에게 중요한것은 올림픽주최국 국민이라는 자부심보다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그룹모임을 통한 노점대중의 생존권 쟁취의식을 높이고 마지막으로 노점상들의 단결을 통해 올림픽 이후의 탄압에 대비, 도시노점상 자립육성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치적 기초를 다지기위한 것입니다.』고 밝힌다. 행사의 내용으로는 풍물공연, 리어카 달리기, 노래경연대회등이 있고 마당극으로 노점상의 생성배경과 탄압과정 그리고 노점상들의 단결속에서 마침내 투쟁을 통해 노점활동의 자유를 획득하는 내용을 공연하게 된다고 한다.

『88서울올림픽은 분명히 우리들의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올림픽을 서울에서 연다는 발표가 있었을 때부터 이미 올림픽에 초대받지못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9월17일은 군부독재와 재벌들이 외국 최구들과 스포츠 귀족들을 불러다 놓고 향연을 즐기는 자리입니다. 우리들은 그날 도시빈민들끼리 모여서 우리들의 올림픽을 열것입니다』 마당극 연습에 참여중이던 한 노점상의 말이다.

"손님이오면 어린이는 조용해야…"

도시노점상과 더불어 올림픽에서 소외당하는 또하나의 집단은 철거민들이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 재개발 사업속에서 집을 잃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올림픽과 관련된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헐려나간 곳은 올림픽 공원및 올림픽 주경기장 주변의 석촌동, 도정동, 장지동이었고 성화봉송로나 결국 경기의 진입로 주변의 평화촌,오금동, 도화동, 신림동, 옥수동, 사당동, 압사동등 수십 지역에 이른다.

이들은 철거당시 아파트 입주권이나 이주보조비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4, 50평 되는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철거민들의 사정을 감안할때 철거는 새로운 주택을 빈민들에게 보급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허름한 가옥들을 도시에서 없애버리고 외국인들에게 마치 「잘사는 나라」의 모습을 보이기위한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다.

이싸이에도 정부와 SLOOC가 올림픽을 완벽한 「당신들의 축제 (?)」 로 만들기위한 민중탄압은 제도적으로도 엄청나다.

지난 7월23일 여·야 4당 합의로 「올림픽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이 선포되었고 8월17일에는 「올림픽 평화구역」을 설정, 일체의 옥외집회를 탄압하는 기묘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이 「평화구역법」에 대해 박세직 SLOOC위원장은 『이 법은 올림픽을 평화롭게 치룬다는 한국민의 결의를 반영한 것이다.

손님이 올경우 주변을 청소하고 어린이들을 얌전히 있게 하는 것은 상식이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어린이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평화구역」이 선포된 후의 모든집회가 원천봉쇄되고 집회 참가자들이 구속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평화구역법」처럼 공공연한 제도적 탄압이외에도 사대주의적으로 외국인들을 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SLOOC는 「외국인을 대하는 법」에 관한 책자를 통해 외국인을 만나면 「간, 쓸개를 다 빼주어도 상관없음」을 역설한다. 더불어 9월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택시합승에대한 제재는 「합승을 기필경우 15만원 벌금에 가격정지 90일」로서 현재 택시업계의 입금과 근로조건등을생각할 때 아예 운전을 그만두라는 소리와도 같다.

남영운수 소속 김모씨는 『이런 법을 정한 것은 외국인들이 합승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최근 들어 한번도 외국인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외국 관광객들도 요새는 단체 관람으로 버스를 전세내서 타고 다니기 때문에 택시는 별로 안탑니다. 도대체 올림픽이 뭡지…』라며 한탄한다.

하루공연을 위해 몇개월동안 책을 내려놓은 학생들

허울좋은 올림픽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비단 이들뿐이 아니다.

흔히 TV방송에 간간히 보도되는 마스게임 참가자들은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어 기쁘다』며 밝은 모습을 보이지만 개·폐회식의 마스게임에 참가하는 조모양 (계원예고1) 의 말은 이들의 고통을 절감케 한다.

『방송국 사람들이나 기자들이 소감을 물어올 때는 모두들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 3월부터 동원되어 연습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연습도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연습 준비를 하나라도 빼먹고 안가져오면 체육점수를 깎기도 해요. 부모님들이 학교에 항의전화를 여러번 했지만 소용이없었어요』

마스게임에 동원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중·고등학생들로서 이들은 거의 매일을 정상적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간식비와 교통비로 SLOOC측에서 각자에게 나온다는 일당 2천원에서 4천원의 돈을 받은 학생은 아무도 없다.

마스게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주경기장 출입구 정비자원봉사자라는 방모양(성덕여상·2) 의 말에 따르면 『저희 학교는 2학년 전체가 자원봉사자인데 저희들 개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동원되었어요. 결손수업은 방학때 보충수업으로 하고 있구요. 상업학교라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데도 요새는 거의 매일 이곳에 나와 있어야 해요』라고 말하여 이들이 거의 강제로 동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골목으로 숨어야 하는 사람들, 미소를 잃은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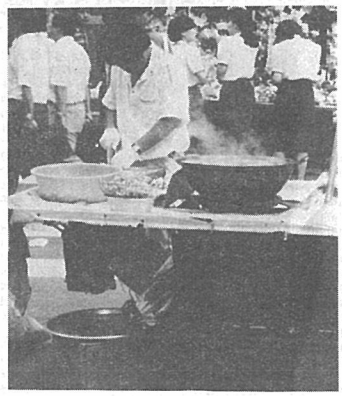
올림픽회관 옥상에서 바라보는 올림픽 공원의 조경은 참으로 아름답다. 인공호수와 다리들, 깔끔하게 다듬어진 잔디위로는 할나무와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있고, 그 주변으로는 쭉쭉뻗은 아파트단지들이 있어 과연 선진국(?) 같은 느낌을들게 한다. 불과 10년전만 해도 논과 밭이었던 곳, 도로는 비포장이라 버스가 심하게 요동을 치며 지나다니던 잠실벌이 이토록 우리나라 최고의 멋진 도시로 탈바꿈한 것은 국민 전체의 일인당 GNP가 몇천불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소수 독점자본가들과 군부독재,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잔치를 준비하기 위함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올림픽이 흑자와 경제성장 그리고 비동맹국가들과의 외교를 확대하기 위한 길임을 역설하는 기만을 서슴치 않아왔다. 공식예산비는 2조원이 약간 넘을 것이라고한 SLOOC가 그동안 올림픽을 위해 부린 돈은 신문지상에서 뽑은 계산으로만도 12조원이넘는다고 한다. 이에대해 SLOOC대변인실 내보과장 김기준씨는 『비록 올림픽이 기대할만한 흑자를 내지 못하고 준비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었다고 하여도 올림픽이후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면 문제없이 해결수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취재팀>
이 진 기자
최 윤 현 기자
한성원 사진기자

그러나 올림픽이후야 어찌되었건 18일간의 축제를 위해 4백만 도빈들이 골목골목으로숨어들어가야 하는것이어린 학생들이 교실에서 나와 경기장을 전전해야 하는 것이 올림픽 1주일을 앞둔 우리의 현실이다.

「인류화합의 제전」이라는 말의 평화로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것의 껍데기를 쓴 채 민중의 생존권을 철저히 말살시키고 독재자들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 치루는 행사라는 것을 아는 「올림픽 주최국」 국민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을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올림픽이 다가오자 도시미관 정비라는 미명아래 노점상 단속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세계로, 우주로, 미래로 2

기업은 인간이며,
경영은 예술입니다.

기업은 곧 인간이며, 그 인간들로 구성된 조직력에 의해 발전합니다. 한진은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모든 인간의 복된 삶임을 잊지 않고 인간본위의 기업, 인재를 양성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읍니다.

경영은 기술과 자본 그리고 인력 등 제반요소를 독창성 있게 조화시켜 단순한 재화생산 이상의 새로운 결과를 창출한다는 면에서 예술과 같습니다.
한진은 경영을 단순히 기업을 꾸려나가는 기술이 아니라, 예술가적인 입장에서 조화롭고 균형있게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 믿고 실천해 왔읍니다.

무한히 펼쳐질 2000년대 ——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부상하려는 한진그룹은 기업경영을 인간을 통한 종합예술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韓進그룹

한진, 대한항공, 한일개발, 한진해운, 동양화재해상보험, 정석기업, 한불종합금융, 한국공항, 한국항공, 한일증권, 제동흥산, 한진관광, 대한준설공사, 대한종합운수, 한국여행정보, 인하학원, 정석학원, 인하병원

멕시코올림픽과 1968년 학생운동

「인류화합의 대제전」이라고 하는 88서울올림픽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올림픽유치 8년, 그동안 올림픽은 우리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쳐온 그들의 잔치준비과정이었다. 민중적·민족적 관점에서 주도되지 못하는 서울올림픽을 제3세계에서 처음 치루어진 「멕시코올림픽」의 사례와 올림픽유치투쟁 위해 8년동안 우리가 겪은 고통을 통해 비교해 본다. 이번 특집은 올림픽을 계기로 나타난 이땅의 안타까운 현실을 조명해보고자 기획되었다. <편집자>

설 갑 수
<서양·서반아어2>

Ⅰ. 들어가는 말

고대 올림픽이 노예와 여성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일부 귀족들의 축제」였다면, 근대 올림픽은 그 시초부터 자본의 논리에 철저히 봉사해 온 형사였다.

20년전 올림픽을 특권에 푸고 그 시작된 멕시코 학생운동은 올림픽이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다기 보다, 수십년 동안 곁곡으로 치달린 멕시코 내부 모순의 분출이었다. 그러나 경기장 하늘에 나부끼던 오륜기는 선혈로 얼룩진 멕시코 근대사를 덮어버리는 계기임을 충분히 안고 있었다.

이에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신식민지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올림픽을 유치한 멕시코의 정치·경제사를 자본 축적과 그것을 가능하게한 제도를 중점으로 서술하고 68년 학생운동의 재조명을 통해 올림픽 전후의 전망을 분석하는데 다소간 징적으로 묘사한다.

10년동안의 혼란기를 거쳐 국가 권력을 장악한 새로운 지배 계급은 그를 내부내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권력 암투와 직면해 오는 계급투쟁의 열기속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국가를 설계한다.

처음부터 국가가 깊숙히 개입한 그들의 새로운 발전 계획은 산업 발전을 국제 신용체제에 의존, 경제에서 국내자본 축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유지 (Ejido) 에서의 내수용 농산물 생산을 기반으로한 대농장 (Latifundium)에서의 수출용 상품 작물의 생산으로 대농장주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멕시코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자본 시장에 편입시켰고, 혁명후 잠시 도태되었던 구(舊)부르조아 입부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었고, 멕시코의 유전과 광산마다 성조기를 휘날리게 해주었다.

멕시코의 자본가가 그들의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는동안 밑에서부터 치솟아오르는 계급투쟁의 열기는 1920년대초부터 국가의 지원을받던 노동자 조직인 멕시코지역 노동연맹 (Confeclaracion Regional Obrera Mexicana)에서 조차 파업을 주도하게되었고, 또한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자생적으로 조합과 연맹을 결성하여 혁명전부터 약속되어 온 국유지불하와 대농장 해체를통한 토지 개혁을 주장하며, 전투적 투쟁을 전개한다.

> 멕시코 자본주의는 외국자본의 침투와 국가주도하의 자본축적속에서 대중의 빈곤화가 특징이다

이러한 계급투쟁의 격화와 마침 닥친세계 경제의 침체는 1934년 대통령에 취임한 라사로 까르데나스 (Lazaro Cardenas) 에게 계급투쟁의 최소화와 지속적인 자본축적이라는 부가지 어려운 난제를 남긴다.

까르데나스는 석유 산업을 국유화시켜 이것의 일부를 민간 자본가에게 분배하는 형식으로 세계 경기 침체로 허덕이는 멕시코 자본가의 숨통을 터주고, 국영 농장을 서서히 불하하여 농촌에서의 계급투쟁을 잠재운다. 무엇보다도 까르데나스의 위대한 업적(?)은 국가권력이 깊숙히 개입한 계급 조직의 결성이었다.

산업 부분에서 농업 부분으로 그리고 모든 부분으로 확대된 이러한 조직은 1968년 학생 운동이 발생하기전의 모든 계급 투쟁을 무력화시키거나 고립화시켰다.

결국 까르데나스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68년 학생 운동까지 지속된 5가지 제도를 완성하거나 그 기반을 닦아놓는다. 그 5가지 제도란, 즉 첫째, 경제 성장과 자본 축적을 이끈 국영기업, 둘째, 자국내 자본 축적을 지탱한 높은 관세와 수입허가 제도, 셋째, 수출 품만을 생산하는 자본 집중적 농업, 네째, 계급 투쟁을 최소화시키는 국가 관장의 계급 혹은 계층 조직을 뜻한다.

결국 까르데나스의 석유 국유화와 국영기업의 사기업으로의 이양은 자본가로 하여금 새로운 자본 축적의 기회를 제공했고, 농민에게 분배된 국영농장은 민중의 생활을 파탄으로 내몰았다. 급기야는 1960년대말에 와서, 멕시코는 농산물을 수출하면서,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로 전락되어 있었고, 국가의 재부 대부분이 5%의 자본가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모순은 위기를 초래했고, 이 위기는 국가 관장의 계급 조직의 일부해체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선진적인 노동자 그룹과 학생 조직에 의해 주도되었다.

2. 68학생운동과 올림픽

1968년 학생 운동의 원인은 혁명 후60여년 동안 누적되어 온 모순의 폭발이었으나, 그 계기는매우 단순하고 우연한 사건으로 집약된다.

그 사건이란 1968년 7월26일에 있었던 두팀진, 즉 까스트로의 몬까다병영 습격을 기념하기 위한 공산당 청년 기구 (Commuist Youth Organization) 의 행진과 7월23일에 발생하였던 인문 학교 (Preparatory School) 와 직업 학교 (Vocational School)사이의 경미한 학교 학생들은 그들의 부모가 그러하였듯이 사회에 진출한후 끊임없는 소외와 좌절을 맛봐야했다.

그러나 7월26일 공동의 적에게 공격을 당한 그들은 그들의 기존의 갈등을 해소하고 투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8월에는 국민 파업위원회 (National Strike Council) 를 결성한다. 이 조직은 128개 학교, 250명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학교마다 투쟁 위원회 (Comitesde Lucha) 를 두었다. 투쟁 위원회는 정치대(Political Brigade) 의 활동을 지시하였다.

정치대는 대강 3개 분과 10여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선전대는 유인물, 포스터 제작과 살포및 거리에서의 끊임없는 소규모 정치 집회를 담당했고 의료대는 투쟁중 부상한 시민, 학생의 치료와 공단·빈민 지역에서의 무료시술 활동을 전개했고, 보급대는 투쟁에 필요한 제반 물품의 보급을 담당했다. 이 외에도 지역 특성에 알맞은 정치대 조직이 있었고 결국 정치대의 눈부신 활동은 대중을 투쟁에 끌어들이고, 그들 자신의 자생력을 높여 나갔다.

투쟁기간중 설립된 학생 조직은 당시 집권당 PRI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 의 경쟁 양성소에 불과했던 혁신의 대학운동 (Movimiento Universitario de Renovudora Orientacion) 조직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에서 탈피, 직접 민주주의의 원리를 도입하고 계급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소규모 조직들의 정치적 입장 (자유주의자로부터 마오, 게바라, 호치민, 트로츠키등) 의 통합을 추진했고, 투쟁의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또한 고정된 지도부가 파괴됨으로써 초래할 수 있는 운동의 붕괴를 막기 위해 1주일 단위로 지도부를 교체하였다.

대중의 투쟁의 참가는 경찰이 학생들에게 바주카포를 발사한 소위 「바주카의 밤 (el da de del bazulcazo)」이후 본격화된다. 관제 언론의 매도와 지배 계급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투쟁은 전 멕시코로 확장되고, 투쟁의 중심지인 멕시코시에서는 8월13일과 27일에 걸쳐 시민과 학생들은 저녁 러시아워에 대규모 시가 행진을 전개하였다. 한편 투쟁이 후반으로 갈수록,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투쟁이 끊임없이 확장되던 8월 중순에 학생들은 정치범 석방, 초헌법적 사복 경찰인 「그란데로스」의 해체, 멕시코 경찰서장과 그 측근의 해임, 시위중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독소조항인 형법 145조의 폐지 등 6가지의요구 사항을 정부에게 통고한다. 이 6가지 요구 사항은 멕시코 민중의 오랜 불만의 표시였으나, 국가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기 보다 단순한 요구에 지나지 않았다.

9월에 접어 들면서, 디아스 오르다스 (Diaz Ordaz) 대통령은 학생들의 시위가 올림픽을 방해하는 것을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였지만, 투쟁은 확산 일로로치달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을때, 박으로는 멕시코를 종요로운 복지 국가로 위장하고 안으로는 경제성장에 대한 자기만족과 데마고그의 도구로써 올림픽을 유치한 멕시코의 자본가와 소위 집권당의 엘리트들은 실제로 60년대에 터진 몇몇 노동운동을 올림픽의 데마고그로 잠재웠다.

학생 지도부는 올림픽으로 그들의 수도가 번잡해지기 전에 보다 과감한 투쟁으로 정부에게 최대한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다고 믿었으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대중앞에서 공공연히 멕시코의 올림픽 유치와 대회를 위한 엄청난 예산을 비난하면서도 올림픽을 방해할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올림픽을 저지할 구체적이고 전투적인 행위를 요구하기도 한다.

『눈앞에 닥친 올림픽에 대한 학생측의 모호한 태도는 그들의 불철저한 계급적 관점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지배계급의 데마고그가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여하튼 멕시코의 지배계급들은 학생들의 투쟁이 미약하나마, 다른 급부로 퍼져 나가는데 위기 의식을 느꼈고 코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을 무사히 치루기위해 투쟁을 와해시킬 계획을 세운다.

디아스 오르다스의 최후통첩과 같은 라디오 연설이 있은 며칠후인 10월 2일 또 다른 정치 집회를 열기 위해 시민과 학생들은 어쩌해질 무렵 「틀라텔롤꼬」광장으로 모여들었다.

「틀라텔롤꼬」광장은 기회 있을때마다 친정부 시위가 있었던 곳으로 광장주변에는 무주택자에게 싼값에 배분되기로 했으나, 끝내 중산층과 상류층에게 넘어간 올림픽 신시가지아파트단지가 그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자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 주변을 중무장한 멕시코 군·경들이 포위하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지도부는 군인과 경찰을 자극하지않도록 계획중에있던 시가행진을 포기하고, 일찍 해산할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공중에 떠있던 헬기의 연막신호를 시작으로 군인과 경찰의 십자포화가 시작되었고, 군중안에있던 비밀경찰이 지도부로 보이는 모든 사람을 낚아채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7백8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슬픔의 밤 (La noche triste) 라고 명명된 이밤을 기점으로 투쟁은 와해되었고 학생들은 학원으로 돌아가 끝내는 올림픽 기간 중에 모든 시위와 집회를 중지한다고 발표하고 만다. 그후 불과 열흘후에 세계의 환시속에 멕시코 올림픽의 광파례가 울려퍼졌다.

Ⅲ. 결론 — 68년 학생운동의 한계와 오류

1968년 여름과 가을을 가로질러 87일 동안 계속된 멕시코 학생 운동은 분명 멕시코 근대 60년 모순의 폭발이었다.

그러나 멕시코 학생 운동의 주역들은 오직 개량적이고 온건한 요구만이 아직 정치의식화되지 못한 대중과 중간 계급을 투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불철저한 민중의 혁명적 진군을 스스로 감제하고 만다. 그들의 개량적 태도는 올림픽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극명하된다. 그들의 내부속에는 올림픽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안이 어느 정도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앞에서 감히 그것을 발설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지배 계급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만다 (올림픽을 방해할 어떠한 행동도 용납치 않겠다!)

그들은 또한 민중을 투쟁의 전면에 세워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또 이것을 위해 매우 창발성 있는 방법 (정치대 등) 을 개발해 내었으나, 그들과 민중과의 결합은 단순히 기계적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기계적인 결합은 투쟁에 있어 민중에게 단순한 지지와 참여만을 요구하고, 체제, 그 자체의 변화 보다는 체제 내외 개혁만을 주장하는 구조를 만들고 만다.

분명 68년 멕시코 학생 운동은 한학생 지도자가 독백한 것처럼 「유리잔을 넘치게 한 한방울의 물방울 일수는 있어도, 유리잔 자체를 깨어버리는 폭풍우」는 되지 못했다.

뜨거운 변혁의 열기의 좌절은 지배계급의 상대적 안정과 통치술의 변화를 가져왔다. 자본가들은 그들의 구조를 개편했고, 국가 권력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개량을 유포하면서 이 개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든 계급 투쟁은 철저히 탄압해 갔다.

이것을 위해 그들은 사상 백색 테러 단체인「로스알고네스」를 결성시켰다.

1968년 학생운동으로 [illegible] 민중의 정치 의식은 혁명 [illegible] 상으로 분화 발전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상은 기존의 가치를 거부하며 노동자, 농민, 학생들의 3급부 연계를 요구하고 있다.

멕시코의 70년대 개량 국면에서 일어난 투쟁에서 증명되듯이 이제 멕시코의 계급투쟁은 단순히 경제투쟁의 차원에서 벗어나 지배계급에 대한 정치투쟁과 사상투쟁 (변혁세력 사이에서의것 포함) 을 병행하며 강력히 국가권력에 도전하고 있다.

<참고문헌>

1)「라틴아메리카와 민주화」한울.

2)「라틴아메리카 변혁사」, 백산서당.

3)Carlos Derzabal, 「Crisis in Mexico」, el Caso de Mexico, 1979.

4)James D. Cockcroft, Mexico: Class Formation,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state. Monthly Review Press, 1977.

5)John Womack, 「The Spoil of the Mexican Revolution」 Foreign Affairs, 1970.

<이하생략>

특집 Ⅱ

혁명후 60년동안 누적된 모순의 폭발이 올림픽이 열린 1968년 학생운동의 근본원인이다

학생의 개량적요구가 전체운동의 혁명적 진군 저해

70년대 노·농·학 연계투쟁이 지배권력에 강력히 대항

내부빈곤을 숨긴 올림픽의 유치는 멕시코를 복지국가로 위장시켜

생명공학에서도 앞서가는 태평양화학

좋은 화장품은 피부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첨단피부과학으로 아름다움의 근원을 밝혀가는 아모레

화장품은 최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2, 3년 후나 길게는 10년 뒤,
당신이 간직한 피부의 미래는 어떨까요?
나이따라 피부도 함께 나이를 먹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젊어질까요?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화장품을
쓰느냐에 따라 피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읍니다.
때문에 피부에 젊음의 가능성,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은 처음 선택이 중요합니다.
좋은 화장품 개발에 앞장서 온 아모레는 피부의 미래까지도
책임지고 있읍니다.

한방울의 물에서 시작되는 아름다움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아름다움의 시작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젊음으로 가득찬 피부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름다운 피부 그대로—'
아모레는 한방울의 물에서부터
젊은 피부, 그 생명력의 신비와 아름다움의
근원을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읍니다.
세계 4개국 발명특허의 천연보습인자 P.S.L.과 국내최초로 생명공학을
응용한 BIO-HE연속공정 개발, 초미립자 캡슐화 제조공정의 성공,
천연원료인 월견초유 화장품 응용 등— 아모레는 피부의 미래를 젊게,
아름답게 가꿔 갈 첨단 피부과학을 추구하고 있읍니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

현시기 진보정당 결성의 발전전망

지 석 규
〈민중정당 재건위원회 기획국위원〉

1. 들어가는 말

진보정당을 결성하려는 남한사회의 제세력들의 움직임이 어느때 보다 활발해져 가고있는 이때 그 주체의 한세력으로서 다음과같은 문제의식을 항상 제기받는다. 진보정당은 어떤사회, 역사적 조건에서 발생하게 되는가? 진보정당의 존립근거는 무엇이며 그 합법획적 발전의 경로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진보정당 사업의 기본방수와 주요방향은 어떤 전망속에서 수립되어야 하는가? 이런한 문제들은 진보정당 사업을 추진하는주체들에 있어서나 민중운동진영에 있어서나 해명을요하는 중요한 의문사항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고찰하기에 앞서 먼저 진보정당 태동의 사회구조적 맥락으로 부터 출발해 보자.

2. 진보정당의 필요성

전후 40여년간 한국 민중은 지배계급에 의해 투쟁의 무기를 철저히 박탈당해왔다. (이념과 정당은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는 파쇼·여당과 보수야당들만의 독무대가 되었고 이들의 극우적·부르조아적 이데올로기는 대다수 민중에게 거의 무제한적으로 관철되어왔으며 이러한 조건은 민주변혁운동의 전진에 막대한 장애로 되어왔다.

그러나 87년 6월 전민중의 파쇼독치에 대한 저항투쟁은 이러한 구도를 뒤흔들어 변혁진영의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총체적으로 진보정당의필요성은 현 지배체제의 전반적 위기와 80년대 이후 민중세력의 구조적 변화—노동자의 성장—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체제의 전반적위기를 맞이한 한국 지배계급의 선택은 노동자 계급을 위시한 변혁세력을 체제내화 (개량화) 시키는 것일텐데 이에 민중세력은 새로운 대안을 세워 맞서야한다.

위에서 열거한 논서에 입각 한때진보전당건설의 일반적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 그러면 주체들은 일보전진시켜 정치실천 수준에서 서술해 보자. 6·29정권에 민중의 반파쇼 의식은 대중적 수준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지배계급이 과거와 같은 극우 파쇼적 강압통치를 함부로 구사할 수 없다는 것과 이들의 반동적 회귀 전략은 오히려 민중의 반파쇼 투쟁에 기름을 붓는 형위로 될 뿐이다.

한편 그간 파쇼의 강압적 통치하에 불이익을 강요 받아왔던 비독점 부르조아지, 쁘띠상층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환경을 조성할 필요의 기회를 맞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를 한껏 유도하여 민중을 환상적 사회발전의 길로 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속에서 변혁세력에게는 제국주의적·파쇼적 세력에 대한 민중의 투쟁결의를 더욱 뚜렷하게 결집하고, 군사독재와 보수야당이 유포하는 부르조아적·개량주의적 정책의 기만성과 허구성, 반민중성을 대중속에 더욱 철저히 폭로함으로써 대중을 근본적인 사회변혁의 길로 이끌어야 할 과제가 그 어느때 보다 막중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합법영역에서 활동하는 진보정당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진보정당이 건설되므로서 변혁진영은 첫째 그간의 비정상적인, 제도외적인 투쟁의 한계를 돌파하여 대규모적인 정치적영향력을 획득할수 있게 될것이고, 둘째 투쟁의 제반조건을 훨씬 유리하게하여 변혁운동의 제반과제의 수행을 앞당길수 있게되고, 세째 대중의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당정치 영역에서 부르조아 정당의 영향력을 무력화시켜냄에 따라 광범위한 대중을 변혁의 대의로 결집시킬수 있게 될 것이다.

다소 도식적으로 설명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난 9월6일 한겨레 민주당과 민중정당 재건추진위원회 (이하 재건위)

▲지난 8월18일 종로성당에서는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정당 재건추진위가 주최한 「민중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제1차 공청회」가 열렸다.

그러나 「진보정당 시기상조론」은 『40여년에 걸친 분단상황과 반공 이데올로기 아래서 일방적으로 좌경·용공으로 매도돼온 진보적 사회운동 세력들에 대해 국민대중들이 아직 주체적인 정치의식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한 상태』 (한겨레 9월2일 --진보정당은 출현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앞서 역술한 내용이 충분한 해명이 되리라 생각한다.

진보정당은 부르조아 보수정당들의 정치적 독점상태가 민중의 정치의식을 심각히 왜곡 시키고 최근의 「올림픽중 정쟁지양」이라는 독재의 구도에 말려들어 타협하면서 민중생존권 탄압과 민중운동진영 탄압에 공감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바로 정당의 형태로 부르조아 보수정당들과 맞서 그들이 유포하는 환상과 해악을 철저히 폭로함으로써 수많은 대중들을 변혁의 대의아래 결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민중적 변혁의 대의원 표방하는 진보정당은 40년 이래 금기시 되어온 민중친화의 사상과 민중의 민주주의 이념을 합법영역에서 공공연하게 전파하여 대규모적으로 정치의식화를 수행하고, 부르조아 정당들의 독점적 정치체제에 강력히 개입하여 이들의 본질을 폭로하고 그 영향력을 분쇄하여 민중의 권으로 분할·견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주체로 개최된 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전남 함평의 농민대표가 발제한 진보정당 결성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문을 참함하게 인용해 보자.

『농민운동 세력은 농민대중과 함께 지속적 투쟁을 했다. 그러나 권력의 주도체나 대체세력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용감하고 없어서는 안되는 양심적인 세력으로만 보인다. 농민운동 조직에 대하여 농민들은 꼭 필요하나 정권적 차원으로 발전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우리 스스로 권력투쟁에 참여하겠다고 농민에게 말한 적은 없다.

농민운동 세력은 대중으로부터 감춰진 지점을 발고 있으나 여러 투쟁의 모습에서 과격한단체나 비타협적 투쟁만 벌이는 단체로 보인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계 됐을때 만 벌이고 그렇지 않으면 남이하면 좋고 자기가 직접하기엔 꺼리는 상태이다. 바로 여기에 진보정당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농민대표 분 만이 아니라 현재 각계·각층의 투쟁주체인 노동자대표, 청년학생대표, 도시빈민대표, 여성대표 등의 전반적 기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대중투쟁을 강화시키고 투쟁영역의 확대라는 측면과 각계급·계층의 생존권 요구와 정치적 요구를 결집하고 정책화 해내더욱 적극화 되고 있다.

올림픽이후의 재신임 투표와 지방자치제, 그리고 내각제 개헌등으로 표방되는 소위 「정계재편」의 제 계기들에 변혁진영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변혁운동의 고양에 올바르게 복무하기 위해서도 진보정당은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

3. 진보 정당의 의의

진보정당은 지도이념이 있어 민중의 민주주의를 자신의 이념으로 하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노동자, 도시빈민, 농민, 쁘띠 브르조아,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등 각계각층의 전민중이 동등한자격으로 참가한다는 점에서 민중민주주의의 단일 강령으로 조직되는 정당이다.

또한 진보정당은 현시기에는 합법정당으로 존재한다. 현재 남한사회에 사상·결사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는 못하나, 변화된 제급간의 역학관계에 기초하여 민중민주주의를 자신의 이념으로 하는 정당이 합법화 될수있는 조건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현시기 대중의 반군사독재 의식은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으며 현실에서 부딪쳐 오는 다양한 정치경험속에서 권력의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있다. 이러한 대중적 기초위에서 진보정당은 진보정당결성에 뛰어들어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는 세력으로는 재건위와 한겨레 민주당 그외 개별적인사들로 4·19세대 6·3세대등이 존재한다. 지난 8월18일과 9월6일 두차례에 걸쳐 단일진보정당 결성을위한 1, 2차 공청회는 구체적 사업의 효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재건위와 한겨레는 전민중운동진영의 단결과 총의를 모아 통합정당을 구성하려 하고 현재 9월13일쯤 통합선언을 준비중이다.

특히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수차례의 통합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후 독자적으로 4·26총선이 맞음하고 그후 양당이 원내외적 진출에 실패함으로써 (한겨레민주당은 한 명의 의원을 당선시켰으나 평민당에 입당함) 진보정당의 발전경로와 그 지도이념, 대중과의 관계등 근본적인 정치적 고민을 하게된 것이다.

재건위와 한겨레민주당의 통합에 있어 골간을 형성하는 정치적 내용인 강령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합에 합의했다.

5. 민족민주운동 속의 진보정당

그럼 현 민중운동 진영의 대호자요, 실천자로 이끌어 올리는, 자신의 내부에 발전동력 (자생력) 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대중정당인 것이다.

4. 현 진보정당 결성의 흐름

지금까지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그일부 성격에 대해서 진단해 보았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인식과 논리를 갖는 세력을 중심으로 진보정당 결성 움직임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 보자.

한국사회의 변혁주체세력중 자신의 역량여하에 의해 광범위한 대중속에 뿌리를 내릴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광범위한 대중을 자신의 당원으로 포괄하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당원을 민중민주주의의 견결한 호지자로 이끌어 올리는 세력이 존재함으로써 (한겨레민주당은 한 명의 의원을 당선시켰으나 평민당에 입당함) 진보정당의 발전경로와 그 지도이념, 대중과의 관계등 근본적인 정치적 고민을 하게된 것이다.

재건위와 한겨레민주당의 통합에 있어 골간을 형성하는 정치적 내용인 강령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합에 합의했다.

5. 민족민주운동 속의 진보정당

그럼 현 민중운동 진영의 대호자요, 실천자로 이끌어 올리는, 자신의 내부에 발전동력 (자생력) 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대중정당인 것이다.

4. 현 진보정당 결성의 흐름

지금까지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그일부 성격에 대해서 진단해 보았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인식과 논리를 갖는 세력을 중심으로 진보정당 결성 움직임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 보자.

한국사회의 변혁주체세력중 중적 발전정도와 이후 전망속에서 진보정당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도록 해보자.

현재 재야를 포함한 민중운동 진영은 현실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노동운동에 발맞추어 전국적인 단일한 투쟁조직을 결성하려 하고 있다. 즉, 서울을 비롯한 인천, 마산, 창원등 민주노조의 연대조직인 지역노조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자유금융노조, 언론노조등 사무직 노동운동 역시 활발해져 가고 있다. 또한 다른 측으로는 서울의 전(全)재야단체를 포괄하여 이번 8월에 결성된 서울민족민주협의회 준비위와 9월중(예정) 에 전국적재야가 망라되어 결성될 전국민족민주협의회가 존재한다.

이것은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핵심적 조직과제인 통일전선 결성의 맹아적 형태로 발전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기본제급조직인 노동자대중조직과, 도시빈민조직 (도시노점상 연합회, 서울철거민협의회등) 농민조직과 결합된 통일전선이 변혁의 주체로 등장할 것이다. 결국 진보정당은 이러한 변혁주체의 흐름에 복무하는것, 다시말하면 통일전선결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연대사업의 필과폭을 내외로 이어나가 결성을 이끌어 내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민족민주협의회 준비위의 강령과규약을 승인하고 조직에 참가하고 있는 현 「재건위」가 이후 결성될 전국민족민주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가외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될수있다.

끝으로 진보정당은 부르조아정당과 동일한 위상이 아니라 4천만 민중과 전민중운동 진영의 지지와 통일된 의견을 바탕으로 결성되는 것이며 그 분견대로써 실천활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부르조아 보수정당들의 정치독점은 민중의 정치의식을 왜곡

대중의 반독재의식, 민중권력의 필요성 인식

민중운동 연대속에서 통일전선 결성에 기여

교수컬럼

우리가 지식을 쌓는 이유

백 마 리 조
〈불어과 교수〉

올림픽을 며칠 앞둔 한국서울 그리고 외대의 분위기가 전과는 사뭇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저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동안 어디서부터 한국에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요즈음 정말로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달동안 한국에서 온세계가 한 가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물론 이 가족속에 그리운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운분과 시작했던 대화가 끊어지지 않았으니 앞으로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 국제학술대회에 「후기산업시대의 세계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이 온 세계와 같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았을때 정말 기뻤습니다. 학자들이 보여준 미래는 그늘없는 삶이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사람들이 연구하고, 경험을 나누고, 인간의 가치를 구하도록 노력하면 세상은 올바르게 이끌어질 수 있을 나라. 이렇게 되기위해서는 한 나라만이 살수없고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고 공통적 협복을 찾아야합니다.

이대평퍼스로부터 이런 정신으로 살게되면 서울, 한국, 동양 그리고 세계까지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나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방법적인 차이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나라에서도 해야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곳이든 기본가치는 있어야 합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 자유의 인정, 사람, 학문에 대한 노력, 비판보다는 판단이…

제가 지금 협복하다는 이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살면서 어느때 보다도 자기 뿌리를 잘알고있습니다. 한 사람을 자기성격이나 특정한 생각으로 몰아붙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남의 문화를 알면서 여러분들의 독특한 문화를깊이아신다면 한국사람으로서 세계인이 될수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인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외대가 동·서양을 교차시키는 학교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때때로 오해도 생기고 문제점들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외대인 모두가솔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해결을 시도하면 됩니다.

올림픽가족, 세계공동체, 한국의 뿌리에 관해 이야기한 지금 저는 한가지만 더 부언하고 싶습니다. 올림픽이 끝난후 장애자올림픽이 있는데 거기에대한 준비도 부족하고, 자원봉사자도 모자라며, 표도 팔리지않는다고 합니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누구보다도먼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식인들의 도리일테니까요. 88올림픽보다 화려하진 않겠지만 확실히 보람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다시한번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生)의 가치를 알고 우리의 인격을 성실히 쌓아 나갈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발전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노력이 모든 사람의 노력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온세계의 협복을 기원해야 할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는 이유도 바로 이때문 아니겠읍니까?

"생(生)의 가치를알고 인격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발전해나갈수 있읍니다."

첨단의 세계, 한양의 기술로

한양화학은 국내 최고의 종합석유화학회사 입니다

석유화학공업의 21세기를 향한 힘찬 도약

국내 석유화학공업을 선도해온 한양화학과 프라스틱문화를 창조해온 한국프라스틱을 합병하여 21세기의 첨단 석유화학분야를 주도해 나갈 종추기업을 아십니까?

현재, 매출액이 우리나라 GNP의 1%이며, 92년도에는 1조3천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국내최고의 종합석유화학회사 — 바로 한양화학입니다.

우수한 두뇌와 진취적 기상을 가진 젊은이면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첨단산업의 세계, 한양화학이 도전과 성취의 장을 열어드립니다.

종합 석유화학기업으로 부상한 한양화학은 고급인력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에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의 일환인 복합 신소재 분야와 신공법의 연구개발 및 영업의 다각화를 위한 능률적인 조직관리는 물론 신기술의 개발과 도입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읍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젊은 세대와 안정된 기반의 한양화학이 만나는 것입니다.

국내최고의 석유화학기업이라는 자긍심과 젊은 세대의 탁월한 능력이 만나 제시하는 한양화학의 청사진은 바로 세계적인 석유화학기업으로 발돋움한 한양화학과 첨단 석유화학업계를 주도하는 진문 기업인으로 성장한 여러분의 미래상입니다.

한양화학의 사업규모

(단위 : MT/년)

제품	생산능력	계	기 존	신규 및 증설	비 고
LDPE		383,000	223,000	80,000	89년 9월 가동
LLDPE			80,000		
EVA		31,000	31,000	—	
PVC		390,000	250,000	140,000	90년 6월 가동
가 소 제		26,000	26,000	—	
VCM		360,000	210,000	150,000	91년 6월 가동
EDC		270,000	270,000	—	
염 소		222,000	222,000	—	
가성소다		347,000	227,000	120,000	92년 1월 가동
정제가성소다		57,000	57,000	—	
염 산		25,000	25,000	—	
PMMA		12,000	—	12,000	89년 5월 가동(합작)
NCC		350,000	—	350,000	92년초 가동
MDI		40,000	—	40,000	91년 12월 가동(합작)
WOOD STOCK		2,400	—	2,400	88년 12월 가동(합작)
자동차용 및 프라스틱 가공품		110,000	110,000	—	
총 계		2,625,400	1,731,000	894,400	

韓國火藥그룹
韓洋化學株式會社

TEL.270-1114 FAX.270-3000 /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1번지(한양빌딩) / 공장 : 여천, 울산1, 울산2, 진해, 부강, 군산, / 해외지사 : LA, NewYork, Manila, NewDelhi

사회주의 문예이론 〈두번째〉

러시아의 리얼리즘 전통과 레닌미학

러시아 예술은 고전주의 전통을 계승발전 시켜
반영론 인민성 당파성은 레닌 미학의주요 관점

이 길 주
〈노어과강사〉

슬레즈넨 마르크스의 미학이론을 러시아의 특징에서 러시아적인 요구와 특질에 적합한 미학이론으로 발전시켰다.

Ⅰ. 머리말

근대 러시아문학은 본질적으로 사회비판을 그 근간으로하여 짜르 체제에 반대하고 계몽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자하는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이 강한 전통을 갖고있다.특히 19세기 후반의 사실주의작가와 비평가들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 한갖 사치에 불과한것으로 간주하였다. 뿌쉬낀 이래 톨스토이까지의 찬미하는 귀족과 체르느이셉스끼, 도브로류보브로 대표되는 잡계급출신의 인텔리겐차들은 구체적 논리로 짜르체제와 사회악을 부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예술창작에 대한 관점은 서서히 새로운 사회건설에 대한 집요한 탐구로 전이된다. 이러한 전통은 19세기 말에 들어서며 수입된 마르크시즘에 접목되어 혁명문화의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

레닌은 이 과정에서 혁명운동과 문화와의 관계를 조화시키는 데 적지않은 관심을 부여하였으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기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단초들을 제공하였다.

1905년 「당조직과 당문학」을 비롯한 많은 글을 통하여 정치와 문학예술의 관계를 정립시키려 부심한 그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전통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마르크스의 원전들은 러시아의 토양에서 러시아적인 요구와 특질에 부응해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러시아의 과거사상을 그대로 발전시키려 하지도 않았다. 1905년 혁명이후 격동기의 20세기초 상황에 러시아 상황을 기계적으로 적용시킬수는 없었던 것이다.

Ⅱ. 러시아 문학사의 발전단계

레닌은 19세기의 벨린스끼, 체르느이셉스끼, 도브로류보브, 게르쩬등의 주요 사상가들의출현을 중심으로 러시아 문학사의 발전단계를 3시기로 구분하여 20세기 혁명운동의 이념을 토기의 뿌리를 19세기전통속에서 찾는 독특한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혁명운동주체세력이 귀족계층으로 부터 잡계층으로 이전된 중요한 기간이며 문학, 비평, 잡지, 교육학, 예술, 과학등 각 분야에서 이들 잡계급 출신 지식인들과 일부 귀족 인텔리에 의한 다양한 문화활동이 꾸드러진 시기였다. 계급이 없는 인텔리겐차 즉 귀족계급이 아닌 하급관리, 도시 소상인, 농민계급 출신 인텔리겐차들이 전위대로 나섰던 것이다.

19세기 러시아 사상가들은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게르쩬과 벨린스끼가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들을 접해 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은 어디까지나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었으며, 레닌은 여기에 촛점을 두고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과 19세기 러시아 사상가들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자임하였다. 레닌에게 있어서는 특히 체르느이셉스끼는 그의 대학시절부터 영감을 불러일으켜 준 러시아의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로, 그의 「무엇을 할 것인가?」는 체르느이셉스끼의 동명 소설의 제목을 그대로 따올 정도였다.

그 체르느이셉스끼의 탁월한 현실감각의 깊이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체르느이셉스끼는 그 당시 농노제 개혁이 막 소개되었던 시기였음에도 곧이 개혁이 근본적으로 부르조아적 성격이 있음을 간파하였다. 그는 개혁의 실체를 혐오하고 그 실패를 예견하였으며, 토지지주와 자유주의자들간의 평평한 줄다리기 속에서 정부의 정책은 파멸을 맞을 것이며, 본격적인 계급투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던 것이다.

체르느이셉스끼는 미학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미는 생활이다」 라는 간단한 명제를 제시하고 이어 「아름다움이란 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진실된 삶의 모습을 발견할수 있는 것이어야……」라고 언급하였다. 레닌은 이러한 체르느이셉스끼의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배경과 계급개념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체르느이셉스끼가 강조한 예술의 교육적 기능을 높이 평가하였다.

체르느이셉스끼와 함께 그는 도브로류보브의 계몽주의에 대한 열렬한 확신과 농민대중에 대한 희생적인 봉사정신을 높이 샀으며, 급격한 과학의 대중화를 주장한 삐사레프의 주장에 관심을 불러기도 하였다.

3) 3단계(1895~혁명이후)

레닌이 규정한 러시아 문학사 발전단계의 세번째 시기는 1895년으로 부터 시작되며 레닌자신의 주요활동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는 노동자계급이 직접 저술하고 출판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라보차야 므이술」 「라보체에 델로」 등 수많은 정치성 잡지들이 출현하시기이기도 하다. 프롤레타리아 문화건설 논의와 함께 「브롤레쫄뜨」 등의 다양한 문화단체들이 부침하였던 이 시기는 이미 레닌 자신의 미학적 견해들이 실험되고 분파되었던시기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의 통합이 도래 이전 단계였다.

Ⅲ. 레닌의 문학예술론

레닌의 문학예술에 관한 평가는 앞에서 살펴본 역사주의적 규범과 함께 순수한 정치적 규범 양자에 입각해있다. 순수한 정치적 규범에 의한 레닌의 미학적 관점의 주요 테마는 주지하는 바와같이 그의 반영론이고 당파성과 인민성의 문제이다.

1) 반영이론

반영론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우주인식론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레닌에 와하여 이론바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소련의 평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레닌은 『지식은 자연에 대한 인간인식의 반영이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즉자적이고 완벽한 반영이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개념, 법칙등에 대한 일련의 추상화, 형상화, 그리고 발전의 과정인 것이다…』라고 하고 인식과 반영에 있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3가지 요소로 ① 자연, ②인간의 인식=인간두뇌(바로 자연의 최고의 산물로써) ③인간인식에 「대한 자연의 반영형상 (개념, 법칙, 범주를 포함시키는)을 들고 있다.

그는 인간은 자연을 거울과 같이 완전히 반사 또는 반영시킬 수 없으며 완전히 이해할수도 없다고 하고 오직 인간은 자연에 내적으로 접근하여 추상화하고 개념과 법칙을 창조하고 세계에 대한 과학적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예술적 창조는 세계의 반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 당파성

레닌의 당파성 원칙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일반적인 프롤레타리아 활동과 문학활동을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당조직과 당문학」을 통하여 문학이 개인이나 집단의 치부수단일 수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운동에 대한 당문학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에 의하면 문학은 『프롤레타리아 공동대의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전노동계급의 정치의식화된 전위에 의해 가동되는 단일하고 거대한 사회민주주주의적 기계장치의 톱니와 나사가 되어야 하고 문학은 조직적·계획적·통일적인 사회민주당 작업의 구성요소가 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문학이 창작의 자유를 박탈당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부언하고 있다. 오히려 창작의 자유야 말로 예술가의 재능을 발굴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레닌의 당파성 원칙은 많은 이견과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그러나 이 원칙은 양면적인 모순관계를 보여주며 역시 변증법적 합일을 이룩하는 측면이 있다. 즉 창작의 자유란 문제에서 자유란 또 무엇인가를 다시 깨우쳐 주려는 시도가 전개되어 있는 것이다.

「당조직과 당문학」에서 그는 『문학이 기계적 조절이나 평준화에 소수에 대한 다수의 지배에 결코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영역에서는 당연히 개인적 창작력, 개인적 성향, 사고와 상상, 형식과 내용에 보다 많은 여지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도한 여지가 없다』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곧 과연 예술가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창작의 자유를 누릴수 있는것인가를 묻는다. 대답은 『사회에 살면서 사회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는 것이다. 작가는 부르조아 출판업자들이 판치는 사회에서는 자유를 이들 출판업자에게 빼앗긴 것이며, 부르조아 대중들 앞에 화가는 순수한 예술의 보완물로 춘화를 제공하여야만 하며, 무대예술의 양념으로 매춘을 보여주어야 하는것이 배우의 비극적 현실이라는 것이다. 결국 예술가는 그를 둘러싼 현실의 영향아래 생활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특정계급의 이해를 대변하여 『사회에 살면서 결코 사회로부터 자유로울수는 없다』고 했다.

이로써 '예술가는 탐욕이나 출세주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주의 이념과 근로 인민에게 봉사할 의무를 지며 이를 선도하는 당이념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3) 인민성

『예술은 인민에게 속하는 것이다』라는 레닌의 말은 예술이 모든 대중의 공동재산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문학과 예술의 인민성 문제는 레닌의 톨스토이에 대한 논설에 다음과같이 언급되어있다.

『예술가로서의 톨스토이는 러시아에서조차 극히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다. 그의 위대한 작품들이 진정 모두의 소유로 되려면, 수백만명을 무지와 몽매, 고역과 빈곤의 운명으로 몰아넣는 사회체제에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나야 한다. 즉, 사회주의 혁명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주의 질서를 통하여 노동대중은 모든 문화자산을 소유할 가능성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민예술은 오직 인민의 생활을 반영하고 인민의 진보적인 부분을 추동시키는 힘을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에 그는 섰으며 이러한 요소를 몇가지 지닌 톨스토이를 높이 평가하며 막심 고리끼의 「어머니를」 그토록 높이 칭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레닌에 의하면 예술은 그 뿌리를 수많은 생산대중 속에 박고 현실의 본질적인 측면을 추구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수백만 노동자·농민이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에 소비에트 예술창작자들은 직접 참여하여 체험을 통하여 그 본질을 획득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예술가는 인민의 이해에 기초하여 현실의 가치를 평가하고 인민의 세계관을 표현해야 하며 이로써 예술가는 인민의 감정, 사고, 의지를 제고하고 결합시킬 수 있다고 했다.

글싣는 차례

1. 진보적 미학으로서 맑스·엥겔스 미학
2. 사회주의 문화건설과 레닌미학
3. 중국혁명과 중국전통미학의 유를·변증법적수용
4. 사회주의 문예이론의 제3세계 수용현황
5. 사회주의 문예이론의 한국적 수용문제

민중예술 보급과 창달을위한 통일

연터뷰

◇대학생 문예운동연합 건준위원장을 만나

▲기자—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9월7일(수) 본교에서 발족한 「대학생문예운동연합 건설준비위원회」(이하 대문연 건준위)는 전체 「문예운동」 내지 「문화운동」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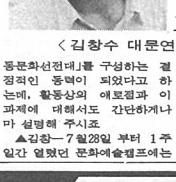
▲김창 —삶의 총체라 할수 있는 문화예시 발전하는 전체운동과 올바르게 상응해야 할 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화패들의 사업형태는 고립분산적—일회적 여흥의 차원에 불과했음니다. 때문에 이러한 제 양상을 극복하는 실천적 대안으로 대문연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대학 문화패의 조직적 연대를 통해서 보다 발전된 모습을 필수 있는것 아니겠읍니까.

▲기자—그러면 현재 33개교 79개팀으로 구성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홍보·강령규약·사무소위등 총3인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그리고 노래, 춤, 문학, 그림등 각 매체분과및 이를 총괄하는 총회를 구성하기까지의 준비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창—6월13일 서울대에서 9개대학 21개 문화패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연석회의를갖고 연대조직 건설의필요성과 외의에 대한 토론과 건설방식에 대한 논의를 가졌음니다. 이러한 몇차례의 모임을 통해 체계와 운영방식을 규정하였고, 이후 서울·수원·용성지역의 33개대학 79개팀으로 조직을 확대하였음니다.

▲기자—지난 여름방학때 국민대학에 문화예술 캠프를 설치, 일련의 건준위 발족을 위한 실천사업을 전개한 것을 압니다. 캠프를 통해 형성된 유대는 8·15남북회담때 각 대학 문화패 1백50여명이 「공



〈김창수 대문연 건준위 위원장〉

동문화선전대」를 구성하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고 하는데, 활동상의 애로점과 이과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주시죠.

▲김창—7월28일 부터 1주일간 열렸던 문화예술캠프에는 총30개대학 40개문화패 2백여명이 참석하는등 좋은 반응을 보였음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강의와 현단계 문화운동의 과제, 그리고 조직화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었는데, 대학생 문예운동의 지도적 구성체 건설을 위한 수많은 논의와 공감, 실천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이견이 있었음니다.

자기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매체별 조직강화 이후 대문연을 건설하자는 견해와, 각 대학내 문화패들을 우선 조직한후 매체간 타매학간의 연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견등이 있었죠.

> "각매체의 고립분산적인 활동을 대문연 건준위에 결집시켜 문예운동의 대중화를 이루겠읍니다."

때문에 하부조직인 매체별 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실무작업에 있어서도 적절한 역량배치와 통일적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어려움의 개선이 앞으로 과제라 할수있겠죠.

▲기자—대문연에 대한 논의가 있기전부터 각 매체별 연대조직이 꾸려지고 있었는데 대문연 건준위와 장르별 연대조직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읍니까?

▲김창—「대학영화연합」「청년미술공동체」「서울지역탈패연합」 등이 존재했죠. 대문연 건준위는 기존 각 패들의 활동을 흡수하여 연합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아직 조직되지 않은 다른 매체의 연대 또한 추동해낼 것입니다.

▲기자—조직강화를 위해 대학생 문예패들을 정립하고 각 매체별 운동론및 예술이론을연구 정착시키는 준비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후의 활동계획은 어떻읍니까.

▲김창—실천적 사업추진을 통해 연대의 질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문예대중화를 위한 사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결을마단계에 있는 대문연 건준위는 그동안 숱한 오류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앞으로도 겪게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문연건설의 장애로서가아닌 발전의 계기를 삼을 것입니다.

▲기자—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수경기자>

정보로 세계시장을
포석합니다.

"청강이 산업의 쌀"이라면
정보력은 종합상사의 血脈—
삼성물산은 전세계 56개 지역에서 430여명의 정보맨들이
세계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읍니다.
동경, 뉴욕, 런던, 홍콩 등 세계의 정보거점에서 수집된
일 6,000件 이상의 정보는 컴퓨터와 통신망이 결집된
SASCOMX라는 독자적인 정보통신망을 통해 편집,
가공됩니다.
그러나 수집된 고급정보는 결코 삼성물산만의 것은
아닙니다. 관계사, 협력회사, 거래선등 무역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체와 공유합니다.
삼성의 촉각으로 수집된 세계의 정보는 지금 이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혈관으로 우리 무역의 뿌리가 되어 세계 시장을
포석하고 있읍니다.

三星物産株式會社

과(科)의 자치활동기구, 과학생회

Ⅰ. 머리말

대학내에서 자치활동이란, 학생활동에있어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말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없다. 그것은 또한 학내의 모든 여론을 수렴하고 통합하여 민주적, 자율적으로 모든일을 실천함을 의미하기도한다.

84년 학원자율화조치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한 대학내의 자치활동기구로서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심점이라 할수있는 총학생회를 비롯 단대학생회 총여학생회등을 들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의 학생회회에도 「각 학과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각 학과에 고유한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독자적인 기구」라 명시되어 있고 가장 밑바탕이 돼야할 그리고 과의 핵심기구라 할수 있는 과학생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특히, 본교의 경우 비록 각 과내의 조직이 나름대로 구성되어 있다곤 하나 올바른 외미로서의 과학생회는 전혀 존재하지 못한 실정이며 그 위상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학생자치기구의 기간 (基幹) 조직이라 할수 있는 과학생회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정립, 아울러 모범적인 과학생회를 타대학을 중심으로 운영, 구성체계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 (論) 해 보고자 한다.

Ⅱ. 과학생회의 위상과 역할

학생회라는 것은 「학생조합」이란 말로 대치할 수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제요구들을 일정한 공간에서 뭇어과성원들이주체가 되어 자주성에 기반, 이익을 실현시키고자하는 대중자치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집단으로 관철시키는것이 과학생회의 역할이다.

앞에 전제한「대중자치조직」이란 말은 학생회는 과성원들, 다시말해 대중이 자주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일정한 체계를 가진 모임이라는 것이다.

또한 「집단적으로」라는 외미는 학생회가 과성원들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소수의 전유물일 수 없고 모든 공식적 활동들은 과성원 전체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서 진행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과외공식행사 (신입생환영회, M·T, 졸업생환송회, 체육대회등) 들은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예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이전공학회와 사회과학학회를 학문연구분야, 성격자체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하여 극단적으로 양분하는 잘못된 견해를 갖고있다.

이는 본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즉 대부분의 학과에 2~3개의 학회가 존재하지만 보통 사회과학서적을 탐독하는 학회, 전공학문을 연구하는 학회로 이분된 상태이다.

이렇듯 학술부하면 천편일률적으로 사회과학만을 공부하고 세미나형태만 고집해 다수의학생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 대부분인데 오히려 학생들의 지향과 요구에 입각한 부서나 반을, 또 학과의 특성에 맞는 연극등의 행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중 총무부는 섭외, 홍보, 회계등으로 역할분담을 하게 된다. 총무부의 가장 주된 업무는 과학생회의 활동비인 예산의 수입과 지출관리라 할 수 있는데 과학생회가 건설된 타 대학의 경우 예산은 한학기 학생회비의 단대 학생회 배정액중 각과별로 또다시 분배,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회비를 수납하는 실정이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학술부는 흔히 제반 사회과학 전반분야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목적의식적 학회와 과의 존재기반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될 수 밖에 없는 전공을 공부하는 부서로 나뉘어 진다.

고려대산업공학과의 「사회연구반」과 「C·L·S·I (컴퓨터연구회) 시립대 영문과의 「철학반」과 「문학반」이 그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고려대 산업공학과의경우,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을회소화시키면서 서로의 독자성을 살리고 상호 유기적인 연관선상에서 과사업을 수행해 올바른 학술풍토의 정립으로 사회비판의 훈련장 (場) 으로서 그 역할을 해 내고있어 바람직한 실례로 여겨진다.

한편, 흔히 학생들이 과학생회와 학회를 동일시하고 또 표현에 있어서도 양자를 혼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혼동은 잘못된 것이다. 과학생회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하는 학회와는 본령히 다르다. 다시말해 원칙적으로 학생회 밑에 학술부(학회) 가 존재하는 것이다.

문화부는 과내에 존재하는 퇴폐, 저질문화를 지양하고 전통, 민족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존재목적이 있다. 문화부는 자칫 잘못하면 부별 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혐오, 형태상에 머물 우려가 있는데, 고려대 산업공학과는 과성원을 대상으로 개사곡 경연대회, 탈춤강연등의 다양한 행사로 문화부가 활동하고 있어 좋은 모범이 되고있다.

편집부(홍보부)는 월간 소식지 발행, 연간 학생회지 발행, 앙케이트조사등 주로 설문조사와 출판사업을 자기의 사업으로 하고있는 부서이다.

소식지는 크게 두가지 기능으로 나눌수 있는데 첫째, 과성원간의 이해를 높여 단결의 기초를 쌓기위한 소식교류의 기능, 둘째로 과성원의 의식을 자각시키고 역사의 주체로서 올바른 비판적 지식인상을 구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위에서 열거한 각부는실례에 지나지 않으며 올바른과학생회 건설을 위해서는 운영에 있어서 자기 부의영역을확고히하고 그 영역의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 과에 맞는 독자적인 소모임등을 조직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의 모든 사업을 관장하며 부서별, 반별대표자로 통일적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그 모임을 상설화하여 어떠한 사소한 문제라도 그것이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집행되어 진다.

또한 운영위는 각단대, 총학생회의 집행부와 확대운영위를 구성, 연계사업·공통사업에있어 조화를 맞추어 나간다.

그러나 과학생회의 사업이 지나치게 총학생회 일에 매몰되어 과원들로 하여금 총학생회의사업을그대로 수행케하고, 반영하는 역할 정도라는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의 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과학생회를 올바로 꾸리기 위해서는 총학, 단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소그룹활동을 활성화,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의 특성에 맞게 부서를 창출, 운영해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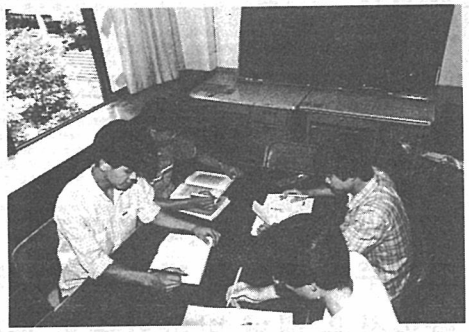
Ⅳ. 과학생회 활동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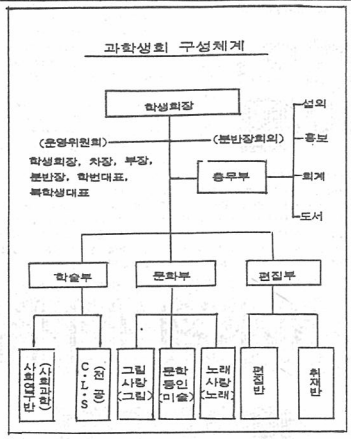
과학생회를운영해 나가는 활동 원칙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철저히 학생들의 자주성에 기초한 이해와 요구에 근거,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주성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인 분반활동은 곧 소멸되며 많은 학생들과 괴리된 소모임으로 전락하게 된다.

행사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모범사례 : 고려대 산업공학과>

둘째, 집행에 있어서의 집단주의적 원칙을 고수해야했다.

과학생회가 전원가입제 방식이 원칙이지만 의식적인 몇 몇 소수의 학생으로 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질적인 대표기구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학생회원들간의 집단적 토론과 의결, 집행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상호이해속에서 집단주의를 고무시켜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운영에 있어서 민주집정제, 공개의 원칙이다.

과학생회는 모든 과원들이 주인인 조직이기 때문에 학생회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철저하게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 서 출발해야 하겠다.

〈강병준기자〉

과학생회 운영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집단적 원칙 고수해야

학생들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기준에 근거하여 그들을 묶고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독자의 소리」 원고모집

도서관에서의 졸건분실, 교직원의 마찰, 학생들간의 의견대립….

의대라는, 좁다면 좁고 넓다면 넓은 공동체속에서 겪고 느끼는 문제점들이나 미담 (美談) 을 본보에서는 「독자의 소리」 난을설치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매수제한없이, 되도록 짧은 글들로 보내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낼곳 : 외대학보 학생기자실—서울 : 학생회관203호 용인 : 학생회관212호

과학생회는 과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조직

과의 특성에 맞게 부서를 창출, 운영해야

는 노동자들의 자발적 기구인 「노동조합」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중에서도 과학생회는 전원가입제(Union Shop) 방식으로 과학에 입학하면 자동적으로 소속되며 과성원의 생활상의 이해와 요구를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과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치조직이라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는 전공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 노래·그림·문학작품을 감상, 창작하고자 하는 것, 사회 제현상의 일반법칙을 알고자 하는 것 등등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과학생회의 위상은 적으로 포괄하여 과학생회운영위원들이 준비, 과원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주체적, 집단적으로 처리되어 지는 것이다.

Ⅲ. 과학생회의구성및운영방식

현재 과학생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대학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등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모범적으로 알려진 고려대 산업공학과를 중심으로구성형태 및 운영체계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학생회의 가장 일반적인 구성은 과학생회장을 중심으로 예산 및 기획의 업무를 맡아보는 총무부와 학술부, 문화부, 편집부, 등으로 나뉘어 각부장, 차장, 분반장으로 운영위원회가 결성되는형태이다. (표)

바로 이기

외국어 학습에 필요한 시청각 제반업무를 처리하며 외국어 분야 전공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인 언어실습의 구체적 업무를 맡아보고 있는곳이 시청각실이다.

현재 시청각실은 언어실습실, 시청각교실, 영사실, 사운드라이브러리등으로 분리되어 여러가지 과학기재를 등원, 효과적인 학습을 수행하고있다.

언어실습실과 시청각교실, 영사실은 정규 시간표에 따라 학과수업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비데오등은 국내외 영화를 정기적으로 방영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고 사운드라이브러리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언어학습을 할수있도록 여러가지 기재를 설치해놓고 있다.

그중 「소리도서관」이라고도 불리우는 사운드 라이브러리는 서울캠퍼스의경우 시청각 교육원 3층에 위치하고있으며 총 98석중 현재50석이 반복기능, 저속재생, 일시기억등의 기능을갖춘 신기재로 교체되었으며 나머지 48석도 내년중 교체할 방침이다. 용인캠퍼스 사운드라이브러리는 어문학관 4층에 위치하고있으며 작년 총48석모두가 신기재로 교체되었다.

학생들의 전의와 학교측의 보수로 많은부분 시설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몇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즉, 1백명당 1개꼴인 좌석부족문제와 테이프종류부족, 냉·난방, 조명상태등이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있는데 대개의 부분은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문제외에 학생들의 이용태도도 개선되어야할 큰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어학실습을 목적으로하는 사운드라이브러리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열람실로 이용하고있고 방학중에는 거의 이용이 전무한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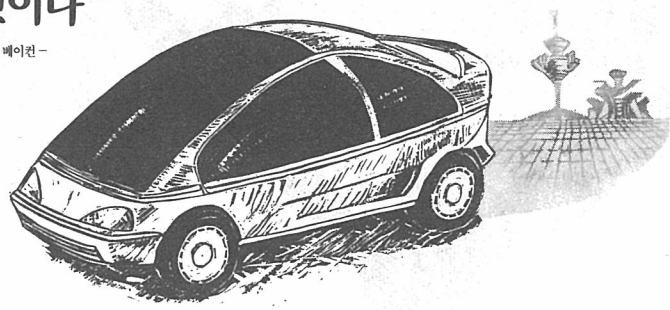
통학의 어려움으로 시간이 부족한 사정도 있지만 총학생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이용이 적은 편이다. 용인캠퍼스의 한 관리자는 『학생들의 많은 이용을 위하여 개방시간 연장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문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개선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용인캠퍼스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개방시간은 오후 5시20분까지로 서울캠퍼스의 10시에 비해 상당히 짧은 편이다. 한편, 모현학사(기숙사) 생들의 편의를 돕기위해 모현학사내에 20석의 사운드라이브러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의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듯 서울·용인 양캠퍼스에 있는 사운드라이브러리는 비록 좌석부족등의 문제해결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머셜어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보다 적극적인 모습과 다른 특적으로의 이용등을 삼가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그럴때 사운드라이브러리는 외국어 전문인력양성이라는 본교의 특수성에 머육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이상필기자>

세계제일의 첨단자동차에 도전한다

"어느날엔가 말이나 그밖의 동물에 의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달리는 차가 생기게 될 것이다"

—1250년 R. 베이컨—



500년 전의 예언

1770년— 「N.J 퀴뇨」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브레이크도 없이 겨우 5km의 시속으로 달리는 증기자동차를 만들어 「R. 베이컨」의 꿈을 실현시키기까지는 장장 500년이나 걸렸읍니다.

1885년— 독일의 「다임러」와 「벤츠」가 가솔린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기까지는 그로부터 또다시 100년, 무려 1세기가 지나서야 자동차다운 자동차가 이 세상을 굴러 다니기 시작했읍니다.

1903년— 선진국에서는 100년 이상이나 자동차문화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단1대의 자동차, 그것도 고종황제의 어차로 선보인 「포드T형」은 이름하여 "달리는 괴물"일 수 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읍니다.

2000년— 한 가정에 한 대, 마이카 시대를 누리게 될 우리나라— 지금은 상상속의 미래자동차라고만 여겨지는 뇌파로 움직이는 첨단자동차까지 개발, 세계제일의 자동차왕국으로 떠오를 날도 결코 멀지 않습니다.

HD 現代自動車

「교수협의회」의결 기관으로…

기존회칙 의결기관 아닌 심의기관 성격 강해

실질적 권한강화통해 대학의 민주적운영 초석마련해야

작년 10월12일(월)총림총회를 갖고 발족한 「교수협의회」가 그지위및 권한이 매우 미약함에 따른 활동영역축소등의 문제가 나타나 이의 개선이 요청되고있다.

이는 최근 연세대학및 건국대학에서 총장을 교수들이 직접 선출하는등 활발해지고있는 타대학 「교수협(평)의회」활동에 기인한 것이다.

본교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교수들의 의사를 집약해 본대학교의 운영전반에 반영시킴으로써 대학을 민주화하고 학문과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출발한 바있다.

그러나 발족당시 채택된 회의에서도 보여지듯이 「교수협의회」의 권한 및 역할은 학교중요행정의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심의기관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있었다(본보475호 참조). 이는 회칙 제3장8조4항과 5항의 총회기능에 나타나 있는▲총장임면에 관한 등의▲학교운영방침의 청취및 의견개진과권고 ▲학교발전정책의 청취및 건의 ▲학교예산에 관한 청취및 의견개진등에서도 쉽게알수있다.

즉, 전국 대학 교수협(평)의회의 선두주자로 출범했던 본교 「교수협의회」는 비록 작년회칙심의에 대한 기능논의과정중 총장에 대한 해임권고·예산편성참여사항 등을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부결,구체적 권한이 위임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족돼 결성 그 자체에만 의미를 찾을 수 밖에 없다.

반면 올해 7월6일(수)재창립된 연세대학교 「교수평의회」의 경우 그 권한및 역할이 본교와 비교해 훨씬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는 연대 「교수평의회」 회칙 제5장에 명시돼 있는 일부조항 (21조~26조)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전체교수가 총장후보 2인을 추천, 재단이사회에 선임요청을 하는 권한이다 (23조). 이로인해 연세대는 건국이래 최초로 지난7월31일 교수들의 손으로 직접 총장을 선출해 타대학들및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바있다. 이외에도 회칙에는 대학운영및 학사에 관한 제반사항의 심의를 통한 총장에게의 건의 (21조), 평의원 대표교수의 재단이사회참석 비롯한 각종 위원회파견에 의한 외견개진및 협의 (22조) 등의 조항이있어 대부분 자문·심의기관의 권한에 국한돼 있는 본교 「교수협의회」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교수협의회」 외장 최종수교수 (영어과)는 『교수협의회 발족당시 작성된 회칙이 결코 유명무실했다거나 권한이 전혀 없었다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최근 연대를 비롯한 타대학 교수협의회가 권한이 매우 강화된 상태속에서 조직돼 상대적으로 우리학교의 권한이 미약해 보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최교수는 『1년이 지난 현재 회칙개정을 위한 논의에는 보다많은 교수들의 적극적인 관심및 요구·노력이 뒤따라야 할것』이라고 설명한다.

「교수협의회」부의장을 맡고있는 김경위교수 (이란어과)도 회칙개정의 필요성을 전제, 『조속한 회칙개정작업을 통한 교수협의회의 위상정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교수협의회」가 지난 1년여 동안 뿌렸던 지위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속에 대학운영의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교수, 학생, 직원이 학원의 주인이고 특히 교수가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되고있는 현 시점에서 본교 「교수협의회」의의결기관으로의 실질적 권한강화는 대학의 민주적운영과 자율적인 교권확립을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이근기 기자>

핸드볼 대회 9일(금)끝나

서울캠퍼스「제19회 동문기쟁탈교내핸드볼대회」가 지난 9월5일 (월) 부터 9일 (금)까지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남녀별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대회의 우승은 남자부에서는 중국어과가, 여자부에서는 포어과가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스웨덴어과, 아랍어과가 각각 차지했다.

서노협·도빈위·서총련 주최 「민중생존권…결의대회」

「울림픽을 빙자한 민중생존권 탄압저지및 독재연장음모 분쇄를 위한 노동자·빈민·학생 결의대회」가 지난 9월11일(일) 오전11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1천5백여명의 학생, 노동자,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지역 노동운동단체 협의회」와 「도시빈민공동투쟁 위원회」/「서총련」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문익환목사 (민통련의장)는 『헌정권이 올림픽을 빙자해 민중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밝히고 『즉각 평화구여법을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주최측 3개단체는 단독울림픽 반대와 평화구여법의 철폐, 그리고 반미·반독재투쟁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한편, 1천여명의 경인지역 학생들은 10일 (토) 오후2시 연세대 민주광장에서 「울림픽단독개최및 독재연장음모 분쇄를 위한 수도권지역 청년학생결의대회」를 갖고 철야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장남용군 국보법으로 구속

서양어문 「청맥」북한통일론 관련

서양어문대 학생회 사회부장 장남용군(노어 4)이 지난 9월7일(수)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장군은 지난 8월31일(수)자 서양어문대 단대지 「청맥」제3호에 북한에서 발표되었던 통일정책원문 「북한의 조국통일방법론」을 특별연재기획으로 다루었는데, 이와관련 6일(화) 유인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같은 혐의로 연행되었던 서양어문대 학생회장 김양수군 (영어 3)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동양어대 2학기 교양특강

동양어대는 9월16일 (금) 오후3시 제2학기 교양특강을 갖는다.

연사는 정태혁박사 (전동국대교수) 이며 「요가 수행법과 철학적 배경」이란 주제로 강연한다.

전두환·이순자 비리관련 「구속수사 촉구대회」개최

「전두환·이순자 구속수사 촉구및 공동울림픽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지난9월8일 (목) 오후3시 어문학관앞 해방광에서 열렸다.

1백50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총학생회 사회부장 윤용배군 (서문·서반아어3)은 지난9월7일 (수) 경희대 수원캠퍼스에서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뇌수술을 받은 용성총련 조등학위장 신두섭군 (신구전문대)의 투쟁보고를 통해 『불과 5m거리에서 직격탄을 쏴 죽음직전까지 이르게 한것은 살인폭력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교 용·성투위 위원장 강성보군 (동문·스와힐리어4)은 공동울림픽쟁취 결의서를 통해 『독재정권에 외해강행되는 반쪽울림픽을 저지하고 공동울림픽쟁취를위해 투쟁하는 것은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영구분단을 획책하고있는 미제와 노태우일당 처단투쟁에 총궐기하자』고 역설했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교문밖 진입로에서 경찰과 대치, 1시간여동안 평화시위를 벌였다.

「강사협의회」 대의원선거 실시

강사협의회는 9월19일(월)부터 10월8일 (토) 까지 대의원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9월12일 (월) 부터 19일 (월) 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인·정정하고 각 단위별로 입후보자를 자체선정하여 투기명부표로 선출하게 된다.

3천원

〈 영화상영 안내 〉

◇서울캠퍼스

—시청각비데오룸 (2202호)

▲9월13일 (화) : 오전10시 「대황하 7편」 오후2시 「미션 (The Mission) 」 오후5시 「더 플라이 (The Fly) 」

▲9월14일 (수) : 오전10시 「대황하 8편」 오후2시 「더플라이 (The Fly) 」 오후5시 「미션 (The Mission) 」

▲9월15일 (목) : 오전10시 「대황하 9편」 오후2시 「미션 (The Mission) 」 오후5시「더플라이 (The Fly) 」

▲9월16일 (금) : 오전10시 「대황하10편」 오후2시 「더플라이 (The Fly) 」오후5시「미션 (The Mission) 」

◇용인캠퍼스

—어문학관영사실 (1412호)

▲9월14일 (수) : 오후1시 30분 「더플라이(The Fly)」

▲9월15일 (목) : 오후1시 30분 「살바도르(Salvador)」

▲9월16일 (금) : 오후1시 30분 「지옥의 묵시록」

▲9월19일 (월) : 오후1시 30분 「매드헌터(Invasion U.S. A)」

▲9월20일 (화) : 오후1시 30분 「실버스트릭(Silver Streak)」

〈 타대학 행사 〉

▲속명여대 : 제11회 「SOCIODRAMA」 9월12일 (월) , 13일 (화) 오후5시30분 장소 : 숙연당 (학생회관6층) 주최 : 교육학과

▲경희대 : 신방과 제2회정기공연 「관객 모독」 9월12일 (월) ~14일 (수) 오후5시30분 장소 : 도서관 시청각실 주최 : 신방과 학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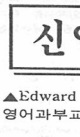
▲이화여대 : 제15회정기공연 「그 가을의 사흘동안」 9월14일 (수) ~16일 (금) 오후6시 장소 : 동창회관 소극장 주최 : 국문과 연극반

—일 립—

본보 기획면 움직일란을 활용하실 분은 서울캠퍼스 학생기자실 (학생회관203호) 과 용인캠퍼스 학생기자실(학생회관212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교수 프로필

▲Edward J. Button 〈 영어과부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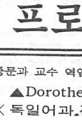


41년 미국 출생。미국성요셉대학교불리학 전공, 미국 공군기술대학교 공학박사 학위취득, 본교 영어과 조교수역임, 메릴랜드 대학교 한국분교 조교수。

▲양영무 〈 중국어과 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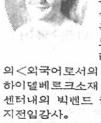
38년 중국 출생。국립대만대학교 중문과 졸업, 동대학교 문학석사학위 취득, 동대학교 중문과 교수 역임。

▲Dorothea Koch 〈 독일어과 전임강사 〉



53년 서독 하이델베르크 출생。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교육독문석사학위 『취득, 하이델베르크 소재 쉴러국제대학교의<외국어로서의 독어>강사 하이델베르크소재 패턴 교육센터내의 빅벤트 커뮤니티칼리지전임강사。

▲한성철 〈 이태리어 과 전임강사 대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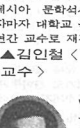


56년 제주도 출생。본교 이태리어과 졸업, 본교 석사학위 취득, 본교 서양어문대학이태리어과 강사。

▲Drs Supriyadi 〈 마인어과 조교수 〉

54년 인도네시아 출생。가자마다대학교 문학학부 졸업, 인도네시아 문학석사학위취득, 가자마자 대학교 문학학부에서 5년간 교수로 재직。

▲김인철 〈 행정학과 조교수 〉



57년 경상남도 출생。본교 행정학과 졸업, 동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취득, 델라웨어 대학교 정치학박사학위 취득, 본교 행정학과 강사。

▲조남신 〈 경영학과 조교수 〉

55년 서울 출생。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석사학위 취득, 미국 렌실베니아대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박희영 〈 철학과부 교수 〉

52년 충청남도 출생。서울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 취득, 파리 제4대학 솔본느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

▲임일환 〈 철학과조 교수 〉

56년 서울 출생。 서울대 인문대학원 문학석사학위 취득, 미국 브라운대학원 철학박사학위 취득。

날아온 비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울림픽잔치상에 「애국의대」의 기치를 높이든 흡산들이 있어 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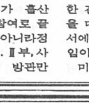
남한 단독의 분단 고착화 울림픽에 자원봉사원으로 참가하는 이문웅,왕산골흡산이 무려 3천명에 달한다는 희보여야할 비보가 날아 든 것이 바로 그것。자원봉사흡산제위! 현시기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들의 축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반통일세력을 폭로하고민족화해의 장을 가꾸는 것이 급선무임을 명심하시압。

○…피는 못 속인다더니야 한자 등처럼는 양키군 속성을 2세를 그대로 이어받아。며칠전, 미국군 자녀들에 의해 일신부가 구타·폭행을당했는데 양키군 짓이면 나랑님의 실수 (?) 인양 눈감아 버리는등 만성이 된 관리나리들, 민초들의 여론에 을며겨자먹기식으로 사건 전모를 밝히고 있어。

집학강도 양키 군들에게 민초들을 놀이감으로 내주는 미덕이(?)관리나으리들의천성이라면 그 천성태문에 민초들의 날벼락을맞지 않기위해선, 과감히 미군들을 싹쓸이 해 후천성민주용감성을 길러보는게어떨지。

○…며칠전열린 이문웅제2차정기학생총회에 유래없는(?)흡산들의 대거참여가 있어화제。

사연인즉, 통일광장에서열렸던 정기학생총회가 흡산들의 적극적인(?)참여로 끝났는데, 연유는다름아니라정작 참여해야할 Ⅰ.Ⅱ부,사업평가 토론에는 방관만하던 흡산들이 Ⅲ부 유명가수무대에는 유명세에 약한 흡산들의 적극성으로 통일광장을 가득 메운것。



제에는 관심없고 젯밥에만 정신팔린 흡산들을 보며 크로니클사는 한마디 하겠소。외대의 주인은 바로여러분이오。

○…이문웅 민주흡산, 민주쯤먹는프락치를 검거해 눈길을 끌었는데。

민주시위를 마쳤는데, 화염병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버스에 투척하려는 괴학생이 있어,민주 흡산,이 괴청년 붙들어놓고 취조한 결과, Y대, S대,본교등을 대상으로 활동한 ×경찰서에 고용된 16살의 프락치임이 밝혀진것。

미행하고 고자질하는 직업의 성행은 이 시대의 모순이 척결되는 날까지 계속될것이 분명하니 흡산들은 모순의 근본원인 전·노 일당의 처단을 위해 용감분투해야할사(事)

○…민초들의 제1의 수배자로 주목을 받고있는 「임꼬부부」가 최근 중대결단(?)을 해 민초들 쓴웃음。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부부, 울림픽 개막식에 참가하겠다고 호언장담(?)해 놓고는 울림픽개막이 박두해오자 민의를 운운해가며 슬그머니 잠적치 않겠다고 해。

잠적해봤자 폭탄세례 당할거라는 선견지명에서인지, 달래고 얼르고 구슬른 ×당 폭의섬과인지는 모르겠으나…。어쩌건 수배법중 가장큰 백을 가진 전××부부, 쉐 믿다가 큰 코 다치지말고 자수하여 지은죄 처벌 받으심이 현명할사(事)。

임꼬 부부(?)

연재만화 〈14〉

김 진태

재학생 입영 희망원 출원자 군입영 안내

병무청에서는 군입영을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장기간 입영대기로 인한 학업공백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재학중에 언제라도 입영희망원을 출원하고, 입영통지서를 받은후에 휴학하도록 다음과 같이 재학생 입영희망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읍니다.

출 원 절 차

○출원대상 : 재학생으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연기중인 자
○출원기간 : 년중 언제든지 출원가능
※19세자는 8월1일이후에 출원하여 20세에 입영
○출원서류 : 재학생 입영희망원서 (출원관서에 비치) (각구청·군청에서 출원)
○출원관서
—징병검사 연기자 : 본적지 또는 거주지구·시·읍·면
—입영연기자(징병검사를 받은 자)
·현역병 입영대상 : 본적지구·시·읍·면
·방위소집 대상 : 거주지구·시·읍·면
○출원시기 : 입영희망시기보다 4개월전

입영희망시기

○재학생 입영희망원서 희망시기란에 기재
○입영희망시기가 입영희망원서 출원일로 부터 너무 빠를 경우 변경될수도 있음。

징 병 검 사

○징병검사통지서 : 입영희망원 접수일로 부터
—본적지 구·시·읍·면출원시 : 1개월 이내에 실시
—거주지 〃 〃 : 2개월 이내에 실시
○재학생 입영희망원서 접수 즉시 징병검사 통지서 교부

휴 학 수 속

○입영통지서 수령시까지 학업 계속
○입영일 직전에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휴학 수속

기 타 사 항

○입영희망원을 출원한후 입영희망시기 이후 계속 재학연기 할수 없읍니다。
○입영희망원을 출원한후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하여 처벌되므로 입영희망원 출원시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입영희망원 제도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지방병무청 신병과(전화 754—0480) 또는 학교 병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지 방 병 무 청 장

세계제일의 첨단자동차에 도전한다 ③

뇌파로 움직이는 첨단자동차 개발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꿈의 자동차 —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상의 것에 도전한다.

본질적으로는 엔진 하나에 네바퀴 달린 좌석을 가진 사람 닮은 상자에 불과한 자동차는 수많은 주변기술의 발전에 따라 거대한 전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자동차를 휠씬고 넘는 변화 가운데서도 가장 심오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전자기술의 혁명일 것이다.

컴퓨터기술의 변혁과 함께 수많은 전자기술의 진보는 그야말로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최상의 것에 도달한 정도로 눈부시다.

고도의 전자상치들이 자동차의 성능, 운전성을 좌우하고 보다 첨단적인 기능을 갖게 한다. 첨단 전자기술로 미래의 자동차는 훨씬 능률적이고, 안전하고, 값싸면서도 안락해질 것이 틀림없다. 어쩌면 머리속에서 생각만 하면 그 생각대로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전환이 가능하고 멈출 수도 있는 자동차가 등장하게 될 지도 모른다.

1954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윌스박사는 생쥐를 이용, 간단한 실험을 했다. 생쥐의 뇌속에 미소 전극을 매립시켜 쥐의 뇌속에는 쾌락중추라는 것이 존재함을 알아냈고, 뇌속에 접촉시킨 미소 전극에 생쥐 스스로 전기자극을 일으키게 훈련한 결과, 생쥐는 1시간에 5천회나 되는 쾌락자극을 스스로 만들어 내어 다른 모든 쾌락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발견해 낸 것이다.

첨단 자동차의 개발에 함께 동참할 용기있는 젊은 엘리트가 많아야 한다.

대뇌는 전기적으로 자극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갖가지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인 ESB Electronic Stimulation of the Brain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밝혀 사실은 인체의 운동을 관할하는 뇌신경의 신호전달은 모두가 미소한 전류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응용, 학자들은 전자의수인 인공팔을 개발해 내었다. 대뇌의 명령이 신경에 전위자극 생기게 하고, 그 전위자극이 움직임을 지시하는 것이 전자의수의 원리였다. 이와같은 원리를 이용, 자동차를 운전시키자는 것이 뇌파자동차인 것이다. 컴퓨터에 의한 뇌파분석으로 포착된 신호의 내용을 자동운전장치에 연결하면 사람의 팔다리를 거치지 않고 뇌파의 명령만으로 원활하게 자동차를 몰고갈 수 있는 것이다.

장래는 운전할 수 있는 꿈의 자동차, 머리에서 생각만 하면 마음대로 조종되는 인간기술 극한의 자동차인 뇌파 자동차의 개발은 바로 그때 젊은 엘리트들의 참여로 보다 빠른 기간 내에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現代自動車

「분지」에서 일어나는「핵반응」

◇남정현의 「핵반응」을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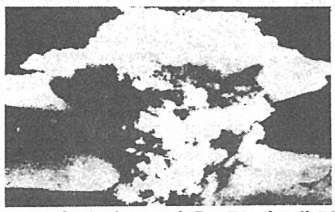
반미의 무풍지대나 다름 없던 60년대 발표된 남정현의 「분지」는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통원 반외세 자주화에 대한 주제로 당시대 문단과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작품의 예술적 완성도에 대한 평가에 앞서 반외세에 대한 선구적인 문제제기는 문학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의미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사회적 파문에도 불구하고 이후 반외세에 대한 문제는 상당한 공백기를 거쳐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모순 해결을 주도하던 세력에 의해 제기되어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평화의 사자」「우방국」으로 인식되어온 환상의 미국은 미국의 실체에 대한 과학적 접근하에 점차 「침략자」「전쟁광」으로 바뀌고있다。미국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은 사회 전반적으로 고양된 반미 분위기와 더불어 한반도 전체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핵무기 철수등 반전반핵운동의 광범위한 전개를 이루게 했다。

사회 각분야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문학분야에서도 예외일수가 없다。이미 반외세 자주화에 대한 다수의 작품이 발표되었으며, 지금도 여러 작가들의 손에서 반외세에 대한 문제가 작품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실린 남정현의 「핵반응」은 반외 연작 허허선생의 네번째 작품으로 우리나라 지배층의 전형적 인물인 허허선생이 외세와 결탁해 자행하는 반민족적 반민중적 모습을 그 아들인 「나」의 시각을 통해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근현대사 조명을 통해 핵설치 배경 밝혀
생존을 위협하는 핵문제 극복 방향도 제시

일제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경찰서 순사부장이었던 허허선생은 해방을 맞아 제주도에 도망을 가있던중 4·3제주민중항쟁토벌대장「리버터」를 도와 위증당당하게 사회로 복귀한다。

친일에서 일제 패망과 미군정진주를 계기로 친미주의자로 변신한 기회주의자 허허선생은 전반핵에 대한 문학적 수용의 또다른 결실이라 할수 있는 작품이다。「핵반응」은 작가 반공의 깃발 아래 정계와 재계의 실력자로 군림하는 외세의 존적 권력자이자 매판자본가의 전형화된 인물로 등장한다。

「나」는 4·3제주민중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며, 미국을 등에 업고 혹시 미운놈이 생기면 그 낯짝에 옴서없이 「용공」의 딱지를 붙여 만사형통하려는 허허선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대립하게 된다。허허선생에게는 민중적 입장을 견지하는 「나」는 언제나 「밀어먹을 자식」으로 불리우고, 「나」는 허허선생이야말로 쓸모없는 아버지다。들은 그야말로 공존할수 없는 관계다。

자신의 안정적 지위기반 확보를 위해 한반도에 핵설치를 서두르며 「핵」「핵」거리며, 『한번 쾅하면 이 삼천리가 박살날 그런 핵무기 말이야。그러니 이젠 승승장구다。』라며 좋아 날뛰는 허허는 정신분열자로 보여진다。

외세의존세력인 허허선생은 얼마전 본교에서 공연된 「히바쿠사」(원폭피해자란 뜻)에서 보여지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자신의 자리 보존을 위해 들여놓는 것이다。『원자시대가 도래한다。이제 세계는 히바쿠사의 역사가 될 것이다。』고 말하던 어느 히바쿠사의 독설이 단지 우려가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핵무기를 들여오면서 기세등등한 허허선생。

그런데 급전개는 천방지축 날뛰던 허허선생의 와병으로 시작되는데, 작품 끝에가서「반공법철폐」「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뉴스가 원인이 되어 허허선생이 쓰러지게 되었다는것이 밝혀진다。

「핵반응」은 핵무기에 의해 위협받는 우리의 생존권에 대한 고발형식의 단편소설이면서도 핵무기 설치배경의 본질적측면을 우리의 근현대사 조명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또한 작가는 간접적으로나마 반핵에 대한 일정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공법철폐」와 「미군철수」시위에 대한 도입은 현재 고조되고 있는 반전반핵, 반미에 대한 반영이자, 핵무기의 위협은 피해당사자인 민중의 반핵의식 고양에 의해 극복되어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아울러 작가가 허허선생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함으로 해서 핵무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감이 있음도 지적할수 있다。허허선생의 약력과 말, 행동에 대한 서술을 통해 외세와 핵문제가 드러남으로해서 이에 대한 외형적 묘사에 지난 감이 드는것이다。「핵반응」은 이같은 한계도 있으나 풍자와 해학적 내용으로 덮게 느낄수 있는 핵문제를 독자들이 피부적으로 접하도록 했으며, 핵문제에 대한 일정 정도의 방향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필수있는 작품이었다。

정 의 범
〈서양·서어1〉

신간소개

4·3 도(島)유채꽃
—임헌영·강영철 엮음

이책은 제주도 4·3민중항쟁에 대한 작품집으로 쇄국된 당시 항쟁의 역사적 의미가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산하의 연작시 「한라산」과 잃어버린 시절, 지나가는 바람에, 도마칼, 당신의 작은 촛불들 소설 10편이 실려있다。

<전예원펴냄 값 3천8백원>

독재자학교
—에리히 캐스트너 지음
—김학천 옮김

독재자의 악순환과정을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이 책은 독재정권의 실체를 희극적으로 해부하고있다。극전개가 우리사회와 유사해 책의 재미와 주제에 대한 공감이 크다。

<전예원펴냄 값 2천원>

우리말의 쓰임새 (147) 즐아들어서

<그동안 동네의 물소동은 갈수록 더해왔다。우물의 물은 날마다 더 줄아들어서 이제는 한 집에서 두 통이 이상을 가져갈수가 없게 되었다。박화성의 「한귀」중에서>

「줄다」는 자꾸 잦이 오는 것과 수분이 증발하여 줄어드는 것의 두가지 뜻이 있다。여기서의 설명은 뭐의 것이다。줄아들다, 줄아붙다, 줄아지다, 줄어지다, 줄어들다는 모두 같은 의미이다。

문화단신

전·진·상 노래모임
—전·진·상 교육관 주최

전·진·상 노래모임이 9월10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4시에 열린다。기존 대중문화의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문화의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번행사는 노래부르기, 노래감상, 노래에얽힌 이야기, 노래책발간, 정기발표회 등이 있을 예정이다。

▲대상 : 일반성인과 학생 ▲연락및 문의처 : 전·진·상교육관 776—1712

제7기 민족학교
—서울민중연합민족학교주최

제7기 민족학교가 오는 9월16일~11월8일까지 매주 화·금요일에 개최된다。

「민족에게 통일을 민중에게 해방을」이라는 주제아래 올림픽이후 한국의 정치·경제전망과 한미관계, 농민운동의현황과 과제, 여성운동, 민중의 역할등에 관한 강연과 토론회가 마련된다。

흐름

월간지 「사회와사상」과「흐름」

최근 새로운 형식에 독특한 내용을 담은 두권의 월간지가 창간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길역사·사회과학강좌」로 유명한 한길사가 창간한 월간 「사회와사상」은 기존 월간지의 폭로형 정치기사를 지양하고 역사변혁을 위한 「사상의 대중화」를 표방하고있다。이달의 주목할 만한 기사는 「현단계 민족통일운동의 실천전략」에 관한 특집기획과 이영희교수의 「남북한전쟁능력비교」연구」, 강만길교수와 박현채씨의 대담 「80년대의 민족운동사적 의미」에 관한 글이다。

한편, 도서출판 형성사에서 펴낸 월간 『흐름』은 정세파악의 지표와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모아놓았다。이번호에서는 「이달의 주요흐름」으로 「조국통일촉진운동」 「공주민중항쟁진상규명운동」에 관한 자료와 「이달의 부문흐름」은 노동, 농민, 학생운동등을 8개부문으로 세분화시켜 전국의 각종자료들을 편집해놓았다。

이러한 사회과학출판사의 새로운 월간지는 일반독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사상」의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했다는 점에서 사상과 자료의 대중화의 새로운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수 있다。

적의(敵意)

문 상 연
〈상경·경제4〉

가난은 굶주림으로 해서
배웠다。
증오는 굴욕에서 왔고,
두려움은 내가 던진
돌멩이 끝에서
되돌아 왔다。

공복에 마신 낯술이
이렇게 내장을
후벼대는구나!

20년을 배워온 교육은
내 비겁한 삶에 알리바이를
제공하고
나는 밤마다
금강산, 백두산을 헤메이는
가위눌린 꿈에서
신음을 한다

나는
비겁으로
가난으로
두려움으로 흘렀던 것일까?

허리잘린 식민지조국에서는 결코
내 허리둘줄은 낮지 않을 것이라며
마냥 북쪽하늘은 바라보는 아버지의
손끝에는 200원짜리 청자가 끝을
모르고 타고 있구나。

훨훨 타고 있구나。

내장을 후비는 저연기가
해방춤을 추면서 저렇게 저렇게
춤을 추고 있는 데…
내몸의 적의(敵意)는
맹독같이
이렇게
번져가고 있다。

꿈꾸는 연습

연재소설 <두번째>

임 한 균 〈서문·독어2〉

『꿈이라도 꾸고 있는거냐?』

지우 보다는 2년 위의 선배 철수였다。철수는 언제나 그랬듯이 지우의 복잡한 사고방식 속에 항상 일직선의 사고방식을 강요했다。지금도 역시 적막을 깨버리고 아침나절의 환한 햇살을 배경으로 우습다는 식으로 지우의 복잡해진 상념들을 깨버리고 있는 것이었다。

지우는 몸뚜리미 철수를 올려다 봤다。사람들에게서 느낄수 있는 아침의 특징 처럼 그에게서 치약의 냄새라든지 비누거품 따위가 느껴졌지만, 그것이 그렇게 깨끗한 느낌으로 떠오르는 것은 아니었다。그것에 상쾌한 느낌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아침이슬의 투명함 처럼 그렇게 영롱한 느낌은 분명히 아니다。

『자폐증이 심해진것 같다。그래서야 어디 대동놀이의 대표격이라 할수 있는 탈춤을 추겠니?』

철수는 옷을 갈아 입으려다 말고 계속해서 멍하니 앉아 있는 지우에게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자폐증 이라뇨?』

지우는 자신에게 남아있던 몇가지 상념의 찌꺼기를 털어버리듯이 바닥에서 일어서며 엉덩이를 툭툭 털고서는 철수에게 물었다。

『아침마다 무얼 하는지 모르겠어? 탈바가지를 뒤집어 쓰고는 벌써 한마당 놀다가 지친 모습으로 멍하니 앉아 있으니… 내게 들킨것만도 몇번 되지 아마? 고민 이라도 있는거냐?』

지우는 그의 질문에 멋적은 듯이 머리를 벅벅 긁었다。벌써 오래전부터 수업이 없는 아침마다 그의 춤을 흉내내고 있었던 것이다。흉체극, 그러니까 몇가지 전래극을 짜집기 형식으로 모아서 지금의 노동자 현실에 맞게 단편의 마당극을 만들어 놓은 놀이판에 철수는 노동자역으로 출연하는 것이었고, 그 극은 며칠후에 「「피혁」에서 있을 노동자 집회에 올려질 예정이었다。철수의 춤은 그 분위기가 애시당초 그리 고아한 분위기를 풍겨내지는 못했고 그의역 또한 그분위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그러나 때로는 밤 정맞다고 까지 느껴지기도 하는 그의 춤이 지우에게 이끌리는 것은 그속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지우가 발견한 이후부터였다。

『…무덤열고 나오라고문 났들아…』

바로 선생님이 끌려가던 그 가을에 지우가 불러댔던, 막걸리 한잔을 거들먹거리며 침한을 해주던 민요반 선생님의 분위기가 선배의 춤속에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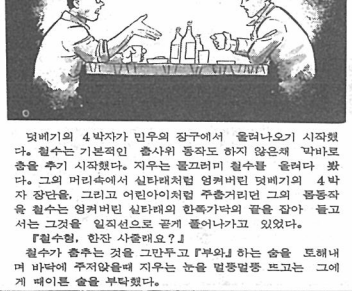
『무엇하고 있는거야? 아침부터 맹연습에 돌입 하는건가? 한사람은 벌써 지친것 같고 한사람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것 같군?』

문을열고 들어온것은 민우였다。지우 보다는 1년선배인 그리고 철수에게는 1년후배되는 사이였다。

『철수형, 한번 춤춰보겠수? 장단을 맞춰주죠』

민우의 높은 테너 목소리가 적막한 탈반의 써클룸에 활기를 넣어줬다。

『그래 한번 해보렴』



덧붙기의 4박자가 민우의 장구에서 울려나오기 시작했다。철수는 기본적인 춤사위 동작도 하지 않은채 막바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지우는 몸뚜리미 철수를 올려다 봤다。그의 머리속에서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덧붙기의 4박자 장단을,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주춤거리던 그의 몸동작을 철수는 엉켜버린 실타래의 한쪽가닥의 끝을 잡아 풀고서는 그것을 일직선으로 곧게 풀어나가고 있었다。

『철수형, 한잔 사줄래요?』

철수가 춤추는 것을 그만두고 『부와』하는 숨을 토해내며 바닥에 주저앉을때 지우는 눈을 멀뚱멀뚱 뜨고는 그에게 때이른 술을 부탁했다。

『술! 아침부터?……그러지, 하지만 오후 연습이 끝난후 저녁에 먹는거다』

흉체극은 그럭저럭 학예회 수준은 넘고도 남을것 같았다。탈춤에 전혀 규칙이 없는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레 여기 저기서 들썩들썩 휘돌려대는 손짓에 힘과 흉체적인 메세지가 솟쳐붙는것이 보였다。

『술은 왜 사달라고 했니?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기만 하면서』

학교앞의 술집은 온통 민중가요,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허교부라진 고함으로 변해버린 그런 민중가요의 소음속이었다。

『조국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래서 투쟁한다는것이 그리고 끝끝내 투쟁을 하다보면 언젠가 잊어버린 꿈들이 살아나지 않나요? 얼어죽은 빨치산 전사의 가슴속에서 나온 낡은 어머니나 여인에대한 사랑처럼 말입니다。거리에서 돌을 던지다 보면 그렇게 잊어버린 어린시절의 꿈들이 유령처럼 꿈틀꿈틀 되살아 나지는 않나요?』

『투쟁이란, 애시당초 부터 인간의 역사였지。자연이나 인간 상호간의 지속적인 투쟁말이야。바로 그것이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그래서 소시민적인 우리들의 가슴속에서 그 유령처럼 꿈틀꿈틀 되살아나는 어린시절의 아니 우리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인간의 꿈이라 할수 있지』

철수의 대답에 지우는 목록부담 아무말도 하지않았다。소위 메모라 불리우는 몇몇 군중의 저항행위는 멀리서 보면 부연 안개속에서 다 큰 어른들의 범정놀이처럼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면 그심한 고통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뛰어다녀야만 하는 그행위가 그것이 투쟁이되어 사람의 탈을 뒤집어 쓰고는 그행위가 왜 어린시절의 꿈이되어 살아나는 것인지 지우는 이해할수 없었다。

『자!』

지우는 묵묵히 술잔을 들고있는 철수의 손을 올려다 보았다。그리고 그 가을의 그노랫가락과같이, 선배의 춤처럼 그렇게 걸죽하다고 느껴지는 막걸리를 지우는 취기의 뱃속에다 또다시 한꺼풀 더얹었다。

『철수야 전화받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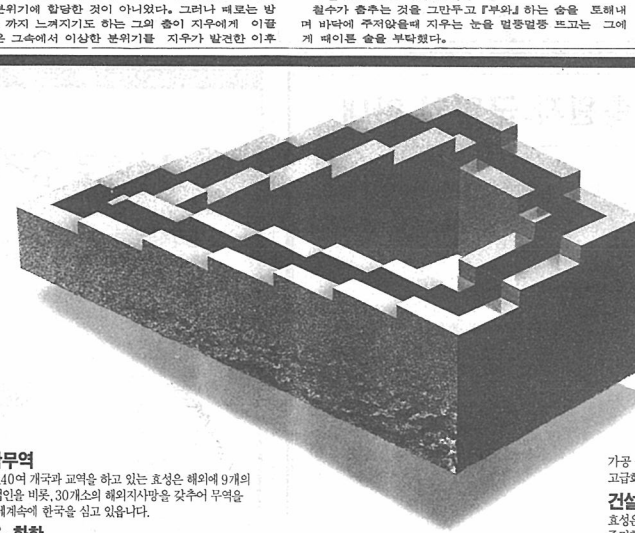
간밤의 술기운에 꾼 꿈이었는지 아니면 오바이트 직후의 비몽거리는 자세로 선배를 본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우는 어딘가가 슬퍼보였던 선배의 뒷모습을 상기하며 부시시 일어났다。

『철수형이 달렸다』

민우의 높은 테너 음성이었다。

『네?』

『얼른 나와라 철수형의 책을 치워야겠어!』



"끝이 없는
무한대의 계단"

무한대의 계단(Penrose's Endless Stairs)
펜로스(R.Penrose)가 1958년 발표한
4차원 구조의 불일치가 이야기는 계단으로서
무한대의 진보와 발전을 상징함.

진보와 발전의 계단—효성

아무리 오르고 또 올라도 끝이 없이 이어지는
무한대의 계단—
그것은 진보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효성의
세계입니다.

무역의 계단을 시작으로 섬유, 타이어, 피혁의
계단으로 그리고 건설, 중공업, 기계, 전자,
화학의 계단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온 효성의 계단—

21세기에도 효성의 무한대의 계단은 더욱
풍요로운 세계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종합무역
세계 140여 개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효성은 해외에 9개의 현지법인을 비롯, 30개소의 해외지사망을 갖추어 무역을 통해 세계속에 한국을 심고 있읍니다.

섬유·화학
효성은 화섬원사에서 제직, 염색가공, 봉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생산 체제를 갖추고 우리나라 섬유업계를 리드하고 있읍니다. 또한 화학분야에서는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의 소재로 사용되는 각종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를 생산, 착실한 성장을 하고 있읍니다.

중전기·전자
효성은 산업동맥의 핏줄이 되는 중전기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컴퓨터 생산, 소프트웨어 개발 등 첨단의 전자, 정보산업 분야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개척하고 있읍니다.

타이어·모터사이클
효성은 자동차관련 산업분야로 세계 각국에 수출되는 한국 타이어를 비롯, 자동차용 밧데리도 생산 수출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생활에 편의를 더해 주는 각종 모터사이클을 생산, 이 분야에서 폭 넓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읍니다.

피혁
효성은 우리나라 피혁산업의 선구자로서 세계 제일의 원단 가공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오랜기술과 경험으로 피혁제품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읍니다.

건설·건자재
효성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고급빌라 등을 건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조하며, 아울러 특수 착색 알미늄, 외벽 단열재 등 건자재도 생산,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읍니다.

曉星그룹

●曉星物産●東洋나이론●東洋폴리에스터●東洋築工●曉星바스프
●曉星B&H●韓国엔지니어링플라스틱●東光化成●韓国타이어
●韓国電池●曉星機械●曉星重工業●曉星나스●曉星히다찌데이타시스템
●大田皮革●東星●大星●曉星金属●曉星드라이바트●曉星開発